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친구를 잘 사귀려면

(The Art of Friendship ·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 영 과

오 은 숙

2012년 2월

친구를 잘 사귀려면

(The Art of Friendship · 번역논문)

지도교수 박 경 란

오 은 숙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오은숙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12년 월

The Art of Friendship

Eunsuk Oh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ran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February 20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is a translation of the book 『The Art of Friendship』 by Roger Horchow and Sally Horchow.

The frantic pace and casual attitudes of modern life have made real friendship a rare experience. The art of friendship shows how making true connections can greatly enhance one's life. Seventy brief essays present simple but effective "rules of connecting" with action points to help you put each rule into practice in daily life. Woven throughout are personal anecdotes from the Horchows, sharing their experiences of friendship. Recognizing that friendships take many forms, the authors offer practical, proven advice that demystifies the process of making friends. The rules include: how to create rapport—even in a crowd, how to transform an acquaintance into a friend, when to e-mail, pick up the phone, send a note, or meet in person, how to maintain long-term friendships and even when it's time to quit. The book opens with a foreword by Malcolm Gladwell (author of *The Tipping Point*) that explores the Horchow's special talent for making and keeping friends. Whether your goal is to start a new relationship or reinvest in a longstanding friendship, this inspiring book will reveal how you can build more meaningful connections in your life.

친구를 잘 사귀려면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70가지 간단한 규칙

로저 호쇼우

샬리 호쇼우

머리말

말콤 글래드웰

목 차

머리말 ----- 1

도입

호쇼우 커넥션 -----	3
1. 인연을 맺어라 -----	6
2. 경청하라 -----	24
3. 진정한 대화를 하라 -----	42
4. 친구의 범위를 확대하라 -----	54
5. 사후관리를 하라 -----	71
6. 깊은 관계를 맺어라 -----	94
7. 베풀어라 -----	112
8. 우정의 밀물과 썰물-----	120

결론

관계를 맺는 것의 교훈과 보상-----	136
-----------------------	-----

머리말

내가 셸리 호쇼우를 처음 만난 것은 정말 아주 오래전 뉴욕에서 열렸던 저녁 파티에서였다. 그 곳에 와있는 사람들 중 셸리는 단연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었고, 솔직히 말해 나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게 됐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관심이 없었다. 그게 아니면 이미 그녀는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행을 하던 중 나는 그녀를 만날 약속을 잡고 있어서 마치 젊은 남자가 앞뒤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상대방에게 덤벼드는 것처럼 공항에서 그녀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댄 기억도 있다. 하지만 그녀와 잘 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 나는 실망스러운 마음에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내 마음만은 통했던 것이다.

우리는 사회성이 실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할거라고 간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는 형용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흔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무조건 덮어 놓고 “형언할 수 없다”라는 프랑스식 표현을 쓴다.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릴 때, 우리는 그것을 마치 비밀을 간직한 커다란 블랙박스과 같이 취급한다. 바보 같은 남자는, 의외로 즐거웠던 첫 데이트를 하고 집에 와서는 언제나 “무엇 때문이었는데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즐거운 데이트였어.”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블랙박스의 비밀이 아니다. 우정은 범죄와 마찬가지로, 수단, 동기, 기회의 간단한 문제이다. 일단 어느 정도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자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어야 한다. 노련한 형사에게 지금껏 보아왔던 범죄에 대해 물어보면, 텔레비전 형사프로그램에서 묘사되는 것과는 매우 달리 범죄현장에서 예측 불가능이란 거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우정도 마찬가지다. 셸리가 나를 친구로 대해줘서 우리는 힘들지 않게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만큼 서로에 대한 호감

이 있었고, 샬리는 우리가 친구사이로 지내는 것을 가능하게 할 만큼 사회성 측면에서 충분히 우아하고, 너그럽고, 재능이 있었다. 아주 간단했다.

내가 처음으로 쓴 책의 상당부분은 샬리가 세계여행을 떠난 동안 그녀의 집을 봐주며 그녀의 소파에 앉아서 쓴 것이다. 우정의 정의 중 하나는 너그러움이다. 그녀의 소개로 나는 그녀의 아버지인 로저를 만났고, 『뉴요커』(New Yorker)잡지에 그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다(적절하게도, 친구를 정말 잘 사귀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였다). 뉴욕에 위치한 그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두 세 시간동안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고, 내가 자리를 뜰 때 즈음에는 나도 그에게 푹 빠져 있었다. 부전여전이었다. 길고 힘든 나의 두 번째 책 홍보투어가 끝나갈 무렵 어느 날이었는데,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나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어색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갑게도 방 건너편에 있는 샬리의 친구 이브와 케빈을 보았다. 그들은 샬리의 친구니까 내 친구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다. 내 생각은 결국 옳았다.

이 책은 게임의 법칙을 안내해준다. 샬리와 그녀의 아버지에 의하면 우정을 쌓는 기술에는 간단한 규칙이 있으며, 그 규칙은 진러미(가지고 있는 패의 합계가 10점 혹은 그 이하일 때 그 가진 패를 보이는 카드놀이의 일종)나 삼바 춤을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 는 어려워 보여도 전문가에게서 배우면 아주 쉬워진다. 그러니 내가 장담하건데, 여러분은 호쇼우 부녀의 책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말콤 글래드웰

도 입

호쇼우 커넥션

관계만 맺어라.

- 이엠 포스터의 『하워즈 엔드』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 데 핵심이다. 공통점, 비슷한 유머감각이나 기호, 공통관심사를 찾는 데서 우정의 기쁨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전에 앞서 친구를 만나야 한다. 친구를 만나기에 앞서, 친구를 찾아야 한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나의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을 가르쳐주는 감각은 어떤 것인가? 우리 모두 갖고 태어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외향적인 사람에게만 있는 본능일까?

로저가 우편주문 카탈로그인 『호쇼우 컬렉션』을 시작했을 때만해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업적이 컬렉션 대신 “호쇼우 커넥션(*Horchow Connection*)”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친구 말콤 그래드웰이 쓴 책 『티핑 포인트(*The Tipping Point*)』에서 이에 대해 썼다. 말콤은 로저가 “연줄(커넥터)”, “세계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보기 드문 사람”, “친구와 지인을 만드는데 정말 비상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썼다. 말콤은 커넥터란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로저는 지인과 친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말은 지나친 칭찬이긴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 제외한다면 우리도 그 말에 수긍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나가 커넥터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기술을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기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습득할 수도 있다.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으로 행동에 옮기고, 우정을 쌓는 일을 당신의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그 사람들을 사후관리 하는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당신도 중요하고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인연을 만들고 지속시켜 주는 칠십 가지 기본원칙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우정의 원칙들은 로저의 경우에는 평생의 경험에서 정수를 뽑아낸 것이고, 차세대 커넥터로서 샐리가 더 나아가 실험하고 다듬었다. 우리는 이 원칙들이 모든 세대의 미래의 커넥터가 될 당신에게, 현대사회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원칙들이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 원칙들을 깨고, 실험하고, 시대에 맞게 고친다. 당신도 이 원칙을 각자의 삶에 적용할 때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행동을 취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친구를 사귀고 유지할 수 있는 기본요소이므로, 각 규칙마다 그 규칙을 실행 수 있는 행동지침을 제시했다. 그것들을 시도해 보고, 여러분의 특정한 상황에 맞게 개발시키기를 바란다.

그 외에도, 우리가 특정규칙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나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그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로저에 관한 이야기는 어두운색, 샐리에 대한 이야기는 옅은 색의) 네모에 넣어 설명했다. 이 책은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이상의 과목을 특별히 교육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학자도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 설명된 규칙들은 적어도 두 세대에 걸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자 여기 그것을 증명해줄 실제사례들이 있다!

이 책 앞부분은 당신이 친밀함을 느끼는 특별한 누군가를 찾는 것에서부터 오래 지속될 우정의 기반을 다지는 것까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간부분은, 오랜 우정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우정을 보살피고 유지하는 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복잡한 관계를 처리하거나 언제 관계를 끝내야 할지 아는 법 등 조금 더 심화된 우정에 대해서 깊이 다룬다.

개인적인 우정과 사업상 친분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았다. 대체로 이 규칙들은 두 경우 모두 적용되기 때문이다. 든든한 관계의 기본토대들인 상호존중, 공통관심사, 공동 활동들은 개인적인 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상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가 반드시 평생 동안 헌신적인 우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고 믿는다. 마음이 맞는 지인, 상황에 따른 우정, 일시적이지만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등 우리의 삶에는 이 모든 관계를 위한 자리가 있다. 이런 우정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흥미롭게도, 우리 부녀간 프로젝트를 하면서 즐거웠던 점들 중 하나는, 이 원고를 쓰는 동안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어 부녀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인연들도 더욱 더 돈독해 지기를 바란다.

-로저 호쇼우 와 샬리 호쇼우

1장 인연을 맺어라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한 날은
아무 의미 없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사무엘 존슨

생각해 보라. 일 년 365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찾고자만 한다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많을 것이다.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곧 당신의 새로운 친구가 될 사람인지 누가 아는가? 하지만 그러한 만남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라. 인사를 건네라. 생소한 상황이나 특이한 주위환경에서 최고의 우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경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벗이 되고자하는 마음이 담긴 우정의 안테나를 세우라. 언제 어디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지 모른다.

규칙 1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라

벗을 사귀면서 새로운 면을 보게 될 때에는 정말 가슴이 뛰다. 어떤 사람에 대해 뭔가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순간, 즉, 유대감을 곧장 만들어내는 공통점을 알게 되는 순간은 마치 백열등이 반짝하고 켜질 때와 같다. 그 공통점이란 유머감각처럼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의견의 일치와 같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스토쿠, 서핑, 대중가요! 풍자, 중국 볶음요리, 삭스 백화점!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얼마간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자 해야만 그런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친구들을 찾을 수 없는 곳이 있을까?”하고 물어보는 편이 더 낫겠다. 그 답은 친구를 사귀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만약 당신이 대화를 먼저 꺼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체국에서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스타벅스에서 디카페인 자바칩 프라푸치노를 주문하다가 또는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의 장식들을 보다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거의 모든 장소에서든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친구를 만드는 첫 단계는, (우리가 매일 알게 모르게 그러고 있듯이) 전혀 모르는 사람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좋은 의도만 있고 진정성은 없는 노력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상황들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항상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가능하다.

□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라.

규칙 2

“친교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라

하지만 당신은 ‘나는 항상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당신이 장담한 새로운 친구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분명히 말하지만, 친구들은 바로 그 곳에 있다. 친교의 안테나를 세우고 행동을 바로 취할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된다. 의상 가게에서 볼 수 있는 용수철로 된 방울 머리 띠를 말하는 게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것들로 인해 오히려 새로 사귄 친구들을 잃거나, 없어도 될 친구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성가실 만큼 사교성이 좋은 주위의 동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난 눈에 보이지 않는 안테나를 말하는 것이다. 이 안테나들은 당신에게 벋을 만들고자 하는 본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어야 한다.

물론, 회사식당, 서점의 추리소설 섹션이나 새해 축하파티와 같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당신이 아직은 낯선 사람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일상적인 순간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 여기에 그 방법이 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라. 당신의 마음을 끄는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가 당신이 얼마 전 다 읽은 ‘파트리샤 콘웰’의 최신작을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당신이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멋진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당신은 친교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 평범한 곳에서 비범한 친구를 찾아라.

규칙 3

어떤 종류의 친구이든 상관없다

우정은 항상 쉽게 정의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세상에는 뜻있는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뜻있는 관계라는 것들이 반드시 한밤중에도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몇 년 동안 한 곳에서 요가수업을 받다보면, 요가수업을 받는 동료와 프로즌 요구르트를 먹으면서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도 한다. 서로의 집에 가본적도, 서로의 가족들을 만나 본적도 없지만, 매주 십오 분간의 수업을 즐겁게 받고, 함께 수업을 받지 못한 날은 아쉬워한다. 그러면 그 요가급우를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더 깊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가? 그건 서로가 원할 경우라야만 가능하다.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꼭 깊은 관계이거나 오래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친교도 얼마든지 있다. 직장에서의 친교, 상황에 따른 친교, 다정한 친분 등 이런 관계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수만큼이나 많다. 각 유형의 친구도 존경과 적절한 정도의 애정으로 대해야 한다. 당신이 만약 가장 보편적인 기대에도 꼭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그러한 친교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 맞보지 못할 보람 있는 우정을 맺게 된다.

□ 우정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여보고, 친구목록에 더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라.

규칙 4

실마리를 찾아라

만약 이 책의 몇 가지 제안들이 결혼하지 않은 딸에게 이상형을 찾아 주변을 항상 살피라는 걱정스런 엄마의 충고처럼 들린다면, 그건 정말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욕구와 똑 같은 본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깊은 우정은 연인관계처럼 감정적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관계는 플라토닉하다.

“이상적인 친구”를 찾는 것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는 것만큼이나 간단하다. 뮤지컬 『남태평양』에 나온 “어느 황홀한 저녁”은 이러한 순간에 관한 노래이다.

황홀한 저녁, 낯선 여인을 만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느낌이 올 거예요 당신도 모르게
자꾸만 그녀에게로 시선이 가겠죠
황홀한 저녁, 어떤 여인이 웃고 있죠
그녀의 웃음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려오면 사람들이 가득한 곳을 가로질러
밤이면 밤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웃음소리가 당신의 꿈속에서 노래 부르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보들은 이유를 묻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묻지 않죠
황홀한 저녁, 진실한 사랑을 만나면
그녀가 당신을 부르면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녀에게로 날아가 그녀를 품에 안아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혼자서 꿈꾸게 될 거예요

그녀를 찾았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그녀를 찾았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물론 친구를 사귄 때에는, (그리고 뮤지컬 밖의 삶속에서는), 그보다는 절실함이 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인연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은 진리이며 사실이다. 안테나의 주파수를 높이 올리면, 당신의 친구가 될 사람으로 끌어 주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첫 인상의 느낌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저녁파티에 갔는데, 당신과 똑같은 옷이나 넥타이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라. 단지 서로 비슷하고, 아마도 당신과 같이 흠잡을 데 없는 취향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친구를 보게 된 것 뿐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책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라. 또는 아침조깅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매일 마주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 보라.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일이다.

친구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선택하고 관찰하라. 무언가 공통점을 발견하면 대화를 시작하라.

규칙 5

“솔직한 말”을 쓰라

다음 단계는 친구를 사귀는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이다. 낯선 사람이나 먼 지인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수줍음을 타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사회생활을 편하게 잘 하는 사람들조차도 낯선 사람과 얘기하는 것 보다는 잘 아는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낀다. 두 경우 모두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이 해결해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개입해줄 것이다, 또는 운명에 맡긴다는 등의 태도로 그 순간이 넘어가기를 바라면 안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어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없지 않은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거나 의견을 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솔직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솔직한 말”은 이성을 유혹할 때나 쓰는 싸구려 저질스런 말을 의미하지만 “우호의 솔직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가장 좋은 질문과 코멘트는 예스나 노 이상의 대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또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친구삼고 싶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칭찬하거나, 최근 시사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어 보거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보라. 예를 들어 “참 멋진 스카프를 두르고 계시네요. 직접 뜨개질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라.

진심을 담아 관심을 표하면 대화도 진행이 잘 될 것이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일부러 노력을 기울이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면, 그들은 언제나 으쓱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해 얘기하기를 생각보다 더 좋아한다. 사람들의 대화를 끌어내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그러니 일단 뭐라도 물어보라!

“이 지역 가장 좋은 박물관은 어디인가요?”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재미있는 전기가 있나요?”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좋은 영화가 있나요?”

이 모든 질문들은 질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에 당신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살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대화가 좀 진행이 되어간다 싶으면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가며 질문을 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내가 찾던 친구가 될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로 원하지 않는 타입인지를 알게 된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일단 시도를 하는 편이 낫다. 몇 번이고 시도를 해보라. 그러면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 다섯 개의 “우호의 솔깃한 말,” 즉, 대화를 시작할 때 건넬만한 말을 적어보라. 그리고 다음에 참석할 공식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라.

규칙 6

눈을 마주쳐라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상대가 불편한 시선으로 방을 훑어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거나,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불편한 인상을 받게 된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이 당신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며 당신의 어깨, 머리 또는 가슴 선과 같은 신체의 한 부분을 응시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은 불편하고 이상한 기분이 든다. 엄마는 눈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물론 좋은 대화란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보디랭귀지는 우리의 모든 대화에 필요한 요소이다. 평온 또는 강렬하거나 집중 또는 산만한 표정의 명료함, 시선의 질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런 것을 명심해서, 누군가를 소개 받을 때 상대방의 눈을 직접 쳐다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눈으로 웃어라. 새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당신의 열린 태도와 의지는 첫눈에 드러날 것이다.

□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에게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을 쳐다보지 말라고 하라. 다시 같은 대화를 하면서 당신의 눈을 보라고 하라.

규칙 7

엿들어라 (물론 공손하게)

샬리는 페이스플레이스의 마사지실에서 몇 달간 통성명을 하지 않은 채 캔디스와 한방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거기서 마사지사과 캔디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하루는 자기도 입을 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캔디스는 신기하게도 샬리가 마스크 팩을 한 채 하는 얘기를 알아듣고는, 자기도 마스크팩을 쓴 채 맞장구를 쳐가며 웃었다. 곧 그들은 페이스플레이스 밖에서도 친구가 되었다.

엿듣기에 가장 좋은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몸을 틀어 고개가 당기게 하라고 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는 엿듣는 것을 지지한다. (유명인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의 보이지 않는 됴됨이를 알게 되어, 대화를 시작할 소재를 찾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엿듣는데도 극도의 기교가 있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의 콜론향이 느껴질 정도라면 너무 가깝게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너무 개인적인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면 뒤로 물러서서 그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라. 마지막으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해라.

□ 주위에서 하고 있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가 멈췄을 때 끼어들어라.

규칙 8

약점을 드러내라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자주 만나본적이 있는가? 대화가 끊기고 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괴로울 정도로 어색해지면,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렇죠?"와 같은 말을 하며 대화를 소생시키려는 힘겨운 시도를 한다. 여기에 묘책이 하나 있다. 당신의 약점을 보이면 결국 차가운 분위기를 깨게 되어 가장 딱딱하던 상대방도 당신에게 호의를 가질 이유가 생기게 되고, 이윽고 한때는 경계를 하던 자신의 성격을 약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비난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상대방의 경계심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고, 결국 상대방이 아닌 당신이 주목을 받게 된다.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저희 식구들 이름도 잘 못 외우는 걸요. 이름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알아요?" 라고 농담조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거나, "저 이 수업이 처음이라서 좀 긴장이 되네요."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다.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들이 아는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런 방법은 결국 사회성과 답을 쌓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수다쟁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분명히 새로운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운이 좋으면 새로운 친구도 생기게 된다. 몇 분 동안 당신의 배꼽을 보여준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결과이다. 적어도 날씨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을 몇 개 생각해 두었다가, 대화가 어색해졌을 때 사용하라.

대화를 시작할 때 쓰는 다섯 가지 방법

1. 칭찬하기 :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을 칭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들고 있는 물건이나 입고 있는 옷을 칭찬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핸드백이 참 예뻐요. 어디서 샀어요?" 또는 "그 운동화 참 멋져요." 라고 하라.
2. 의견을 물어보기 :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좋아한다. 시사문제들은 많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면, "오늘 재판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 볼 수 있다.
3. 정보 요청하기 : 도움을 주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기 좋은 식당 있나요?"나, "--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라.
4. 대화에 참여하기 : 이것은 사고모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대방이 하던 이야기나 해왔던 일에 관한 주제를 택하라. "특이한 칵테일을 마시는 것 같은데, 그거 괜찮나요?" "당신이 최근 영화 스타워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저도 동감했어요."라고 하라.
5. 상대방 자극하기 : 이 방법을 통해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끌려면 어느 정도의 재간이 필요하다. 대화를 흥미롭게 하려는 것이지 짜증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칠대죄악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가벼운 죄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와 같은 말을 하라.

피아노 치는 남자

1979년도에 나는, 스콧 버그가 맥스 퍼킨스에 대해 쓴 신작을 읽었다. 책을 읽고 일주일 남짓 지났을 무렵, 나는 볼더 소재의 콜로라도 대학에서 열린 국제문제협의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이 협의회는, 1940년도 후반 주요현안에 대한 지식인의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회학자인 하워드 히크만이 설립한 조직이다. 그는 매년 다양한 학계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일주일간 패널토론을 벌였다. 그해 사월은 다니엘 엘스버그를 주축으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루카스 포스, 사회학자 페페 슈워츠, 영화비평가인 로저 에버트, 시인이자 월간 대서양(*the Atlantic Monthly Press*)의 이사인 피터 데이비슨, 포드극장의 감독인 프랭크 휴이트, 현재 사이컬러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잡지의 편집자인 잭 네슬 등 많은 명사들이 함께 했다. 거기서 나의 역할은 소매업자의 전망을 회의에 소개하고 그 당시에는 다소 생소했던 우편주문판매에 대해 강연하는 것이었다.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한 나는, 그 환영카테일파티에서 내가 꼭 서먹해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됐다. 연회장에 도착하자, 방 한쪽 구석에서 한 젊은 남성이 거슈윈의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 “블라 블라 블라”를 피아노로 연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거슈윈 (역자주 : 1898~1937, 미국의 작곡가)의 팬으로서 그 곡을 잘 아는 나는, 카바레 계통과는 거리가 먼 콜로라도의 피아노 연주가가 그 노래를 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저녁파

티를 위해 단순히 고용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 남성이 피아노를 치다 일어나 손님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자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일까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거슈윈의 노래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주제에 대해 몇 분 동안 대화를 나눈 뒤 그는 자기 자신을 "스콧 버그라고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나는 마치 스타를 동경하는 광팬처럼 그가 쓴 책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쏟아냈다. 알고 보니 그도 내 우편주문 카탈로그인 호쇼우 컬렉션의 대단한 팬이었다. 서로에 대한 칭찬을 마친 뒤 우리는 공통 관심사인 거슈윈에 대한 얘기를 다시 나누기 시작했다. 스콧은 대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아노를 치곤 한다고 했는데, 나 역시 그 수법을 간혹 사용했다. 그런 것 외에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그 주의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점심시간에 서로 만나서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모두 지루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곳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거의 삼십년 지기 친구가 되었다. 정반대의 결과로 그 멋진 일상의 탈출 덕에 나는 그 후 삼년 내리 그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때까지 내가 결코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의 많은 흥미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내가 만약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 “피아노 연주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지 않았다면, 또 그의 책에 대해 흥미를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다면, 우리의 회의는 그저 “만나서 반가워요.”라는 인사나 나누는 평범한 회의가 되었을 것이다. 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친교의 안테나를 세우고 경계를 낮추었기 때문에, "블라 블라 블라"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정말 허튼소리가 아닌 우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규칙 9

“소개”로 만나라

누구나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속담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당신 친구의 친구들도 당신이 좋아하는 부류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웹사이트 프렌즈터닷컴은 이러한 점을 전제하고 만들어졌다. 생각해 보라. 수십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당신의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코앞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 논리를 확인해 보려면 당신 친구들과 그들의 친구들을 초대해서라도 친구를 “소개받을 수 있는” 사교의 장을 넓혀보라.

물론 이런 방법이 좀 꺼려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도 이해한다. 지난날 누군가의 주선으로 만났던 어색했던 그 만남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당신이 어떤 친구를 좋아할지에 대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을 수도 있다. 또한 꼭 아는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들만 만나야 하나고 불평할 수도 있다. (당신이 이런 불만의 소리를 질러대며 불평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 설명하자면 이렇다.

로저는 프레드의 친구인 마이클을 만나보라는 프레드의 청을 오년 넘게 거부해왔다. 하지만 로저와 마이클은 달라스에서 열린 파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왜 서로 “소개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국 프레드가 말한 것처럼 금방 친구가 되었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샬리의 친구 케빈 맥엘레스터가 자신의 대학 동료인 스테파니 퍼먼이 정말 샬리의 맘에 들것이라고 했을 때, 샬리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이 년 동안 케빈의 우호적인 제안을 회피해 오다가, 샬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게임 나이트”에서 스테파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 짝 친구가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볼 수 있듯이, 소개로 만나서 손해 볼 것은 없다. 더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새로운 우정을 즐길 시간이 줄어들 뿐이다.

소개로 만나는 것은 새로운 도시에 있거나 낯선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좋다. 처음 만남에서 있을 수 있는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당신과 취향이나 의견이 맞는 기존의 친구에게 사교모임이 있을 때 당신과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함께 초대해 달라고 청하라. 그래도 더 나은 것은, 용감하게 나서서 직접 파티를 열어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사교의 장 또한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고, 친구들에게 당신이 모르는 사람 한 명씩 데리고 오라고 청하라.

규칙 10

새로운 친구가 들어올 마음의 여유를 남겨놓아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친구를 사귀는 용량”에 한정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살면서 정말 기존의 우정을 희생하지 않고도 충분히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 수 있다. 동기부여가 필요할 뿐이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말은 삼가라.

"스케줄이 빡빡하다."

"난 수줍음이 많아."

"지금 내 친구들과하고 연락할 여유도 없어."

"여력이 없어."

이러한 변명들은 당신에게서 친구를 폭 넓게 사귀고자 하는 의지를 빼앗아간다. 모든 우정마다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는 것은 아니며, 그 관계를 의미 있게만 유지한다면 가끔 만나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친구라는 “자산”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마음을 열어서 더 나빠질 것도 없으며, 비용도 들지 않고, 큰 보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당신은 기존의 친구들에게도 더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 한 칸에는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이유들을 적어라. 다른 한 칸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남으로 인해 얻는 이익을 적어라. 그리고 두 칸의 내용을 잘 비교해 보라.

규칙 11

귀가 되어 주라

이쯤 되면 당신이 평생지기를 사귄 수 있는 새로운 모든 기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은 대화 탐지기를 개발했고, 두 사람사이의 흥미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으니 이제는 정말 가능하다. 그동안 자주 마주치기는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건넸거나, 더 나아가 대화를 시작했을 수도 있다. 참 훌륭하다! 하지만 이제 한걸음 물러서서, 당신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대방의 반응하도록 하라.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잘 해야 한다. 접근법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알고자 하는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대화를 하려면, 남녀 간의 관계에서와 같이 주고받아야 하며, 가끔씩은 테니스 경기처럼 빠른 속도로, 또 때로는 왈츠와 같이 여유 있게 패턴에 맞게 조율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그 춤을 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라.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말라. 지나치게 말이 많거나, 주장이 강하거나, 너무 많이 드러내면, 반감을 줄이고자 했다가 오히려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본인은 말을 멈추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반응을 하게 한다면, 대화를 하는 상대방은 의욕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2장 잘 들어라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며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올리브 웬델 홈스 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는 말을 듣고서 놀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잘 듣는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있는 관계를 개선시키고 향상시켜준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상대방이 하는 말보다, 내가 말할 차례에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더 나아가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면 이런 자기도취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응답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친구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면 당신은 분명히 더 섬세하고, 더 지적이고, 더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규칙 12

말하기 전에 들어라

진정한 대화는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친구 혹은 친구가 될 사람과 얘기를 할 때는 우선 잘 듣고 난 뒤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해져 상대방도 잘 들으려는 마음을 먼저 갖게 될 것이다.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우정을 쌓는 일은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바로 그때, 당신은 상대방의 말 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 몸짓, 말투, 습관들과 같은 많은 정보들을 보고 듣게 된다. 그리하여 당신이 그런 많은 정보에 얼마나 열중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게 된다. 만약 당신이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도, 관심을 보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상대방은 아마 더 이상 말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순수한 감정으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많은 대화를 이끌 수 있으며, 더 깊은 인관계를 쌓을 수 있다. 귀를 기울여라!

다음에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당신이 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살피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규칙 13

“적극적으로” 경청하라

들리는 것에 귀를 잘 기울여보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다. 관심이 가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도 있다. 사람은 살아서 숨 쉬는 책과 같아서 언제든지 지식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줄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절친한 친구하고 있을 때마저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한 분야에 대해서 당신에게는 없는 저마다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명심하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낯선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새롭게 알게 된 이 사실을 잘 적용하여 사려 깊은 대답과 질문을 하게 된다면, 당신이 하는 일상적인 대화의 수준은 향상될 것이며, 우정의 깊이 또한 더해질 것이다.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다보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릴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당신이 몰랐던 사실 최소한 한 가지를 발견해보라.

한 남자에게 던지는 작은 질문...

내 친구 딕 베스(이제 70대가 된다)는 수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모험을 경험해왔다. 그는 모든 칠 대륙의 가장 높은 산 정상까지 오른 최초의 사람이며,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최고령자이다(55세에 등반, 5살 차이로 최고령자 됨).

그 친구는 어느 날 나에게 자신이 비행기를 탔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친구는 옆 좌석에 앉은 매너 좋은 한 신사에게 위험했던 에베레스트와 메킨리 정상등반 이야기, 히말라야 산에서 죽을 뻔 했던 이야기, 에베레스트를 다시 등반하고자하는 계획 등에 대해 늘어놓았다고 한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에 베스는 그 옆 좌석 신사에게 몸을 돌려 “그나저나 아직 제 소개를 하지 않은 것 같군요. 딕 베스입니다.”라고 했다. 그 신사는 악수를 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닐 암스트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답했다. 만약 베스가 잠깐이라도 자기 말을 멈추고 그 신사에게 질문을 하나라도 던져봤다면 베스가 나누게 되었을 대화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보라.

규칙 14

특이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야기 중에서 나오는 자세한 설명이나 특이한 사실들이 그 이야기의 더 크고 더 중요한 사항 때문에 종종 묻히게 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설명과 사실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에 양념을 친다. 그리고 허풍을 잘 떠는 사람의 경우 대화에서 사소한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대화에서 특이한 내용들에 관심을 가져보면, 그 대화에서 상대방과 빠르게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상대방의 호, 불호가 당신과 유사하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내는 것은 대단한 일이며 우정을 쌓는데도 도움이 된다. 상대방이 은연중에 했던 말을 듣고는, “지난 주말에 자전거 탔다고 했었죠? 저도 산악자전거 좋아해요. 주로 어디서 자전거를 타세요?”라고 말을 걸어보라.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언급한 특이한 사항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난 주말에 자전거 탔다고 했었죠?”라고 하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을 보여주라. 그리고 나서, “저도 산악자전거를 좋아해요.”라고 하면서 공통의 관심사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긍정적인 힘을 가하라. 여기서 “주로 어디서 자전거를 타세요?”라고 한 마지막 질문은 관계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하다.

□ 더 알고 지내고 싶은 사람을 만난 후, 함께한 대화에서 기억나는 내용을 모두 적어보라. 구체적일수록 더 좋다.

“튼튼한” 우정을 이루는 바탕

나는 백악관의 퍼블릭룸을 관리하는 비정치 단체인 백악관 보존위원회 이사회의 일원이다. 내가 입회하고 열렸던 첫 회의는 백악관 패밀리 다이닝룸에서였는데, 백악관 이스트룸의 커튼교체에 관한 논의가 오랜 시간 지속됐다. 한 때 레이건 대통령의 의전비서였던 월터 아넨버그 여사는 영부인 재클린 케네디가 특정 커튼천의 두 배 분량을 주문했었다고 언급했고, 그 말을 들은 현 책임자는 커튼을 그것으로 교체해서 과거의 아름다운 방으로 복원시킬 수 있었다.

그때 나는 국립예술관 소장 “리스트”파월과 예일대학 아트갤러리의 미국회화 큐레이터 헬렌 쿠퍼가 시대가구, 회의실의 색상, 다양한 예술품들과 장식품들의 교체에 관해 의논하는 것을 매우 흥미롭게 들었다. 그들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 유심히 살피다보니, 완전히 새로운 대화의 영역을 알게 되고 나의 식견도 상당히 넓힐 수 있었다. 나도 이 분야에 이렇게 관심이 있을 줄은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다.

규칙 15

중요한 사항들을 철해두라

초기의 만남에서 상대방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멋진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전 대화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으면 다음 대화에서 그것을 언급하라. 그러면,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상대방은, 당신이 그 말을 기억할 정도로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곧 자기생일이라고 동료가 말하면, 생일카드를 꺼내서 그를 깜짝 놀라게 하라. 새로운 이웃이 티라미스를 좋아한다고 얘기했다면, 차 마시러 오라고 초대해서 티라미스를 대접하라. 그런 대접을 받은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그런 사려 깊은 행동을 했다는 데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청하는 것은 기존의 친분을 유지하고 더 돈독하게 만드는데도 효과적이다. 친구가 좋아한다는 작가의 신작을 당신이 보냈을 때 행복해 할 모습, 또는 친구에게 걸스카우트 쿠키 한 상자를 보냈을 때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좋아할 모습을 상상해 보라.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경 쓸 수 있는지 궁금해 할 지도 모른다. 어떻게 모든 모임마다 있었던 각각의 모든 대화내용에서 자세한 것까지 모두 기억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까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친교일지나 달력에 중요한 날을 기록하고 메모해 두기를 권하는 것이다. 만약 기계에 좀 더 능숙하다면 PDA나 노트북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주소록이나 달력에 “친구에 대한 정보”를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규칙 16

친구 각자의 성향에 따라 맞추어라

중요한 세부사항, 행사, 생일을 기억하는 것 외에도, 당신의 친교에 의미를 더 부여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찾아보라. 단순히 친구와 점심을 같이 먹기보다는, 좀 더 사려 깊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해보라. 예를 들어, 친구가 켄터키 경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친구를 초대해서 박하향 줄렘음료를 내오고 경주를 보면서 친선내기를 하는 것은 어떨까? 또는 동네 새 아파트에 아는 사람이 이사 왔다면, 마을을 안내해 주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친구가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다. 시간을 내 이런 식의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요는 당신이 배려를 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든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편지와 행동은 칭찬과 마찬가지로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닐 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며,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상대의 심각한 고민을 들어주기 전에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 친구 리스트를 만들어라. 각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몇 개 적어라. 무작위로 이름을 골라 그 메모를 바탕으로 친교활동을 계획해 보라.

호쇼우의 일주일에 한번 생일카드 보내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나는 연락유지수단으로 생일을 즐겨 사용한다. 연중 마음에 드는 카드를 볼 때면 미리 사서 모아둔다. 나는 월간수첩, 포켓수첩, 팜파일럿 전자수첩에 내가 만난 사람들의 생일을 잘 정리해 놓는다. (수첩이 세 개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나보다 더 쉬울 것이다.)

주초마다 나는 그 주에 생일을 맞은 사람들에게 짧게 마음을 담은 카드를 보낸다. 그 외에도 미리 날짜를 설정해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전자카드도 즐겨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 생일을 빠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규칙 17

맞습니다, 그리고...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말을 더듬거린다. 누가 대화중 부적절하게 끼어들거나, 상대방이 말을 아끼거나, 상황이 단지 어색한 경우에도 대화는 엉망이 될 수 있다. 죽어가는 대화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즉흥 코미디에서 힌트를 얻어라. “맞습니다, 그리고”라는 즉흥 코미디의 유용한 화법이 있다.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악어 씨름이 예전 같지 않아요.”라고 하면, 맞장구를 치며 “맞습니다. 그리고 젖은 모래 때문에 더 방심할 수 없게 되죠.”라고 하면 된다. 상대가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또는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할지라도), “맞습니다, 그리고”라고 함으로서 마치 즉흥적인 연주를 하는 것과 같이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웃는 얼굴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리고”화법도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오늘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놀랐어요.”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화법을 사용해 “맞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까지 구름 한 점 없네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 반대의 대답은 “오늘보다 더 맑은 적도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첫 번째 대답은 대화를 계속 유지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며, 그 후자의 대답은 대화의 흐름을 막는다.

□ 친구와 즉석 게임을 해보라. 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맞습니다, 그리고”라고 대답하고,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살짝 덧붙이라. (불가능하겠지만)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을 때까지 게임을 계속하라.

규칙 18

맞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건전한 토론이 진정한 대화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이지만, 대면하기에 불편한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열차사고를 피하는 것이 낫다. 증기기관차가 당신 쪽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열차궤도에서 빠져 나와 대화를 멈춰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마치 단단한 밧줄로 기차길에 꽂꽂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안다. 그럴 땐 “맞습니다, 하지만” 화법을 사용해 보라. 당신의 신뢰를 깨지 않고도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들었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정중하게 표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라고 하라. 서로 귀 기울여 잘 듣는다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관점을 서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당신의 견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 언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다른 모든 방법으로도 안 되면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핑계를 대라.

친한 친구와 출구전략을 연습하라.

난상토론

한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족경영회사의 전이사이자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는, 편견이 있기로 악명이 높은 X씨의 어이없는 정치적 연설에 반대의견을 가진 적이 있었다. 나는 X씨의 단호하고 오만한 연설에 대한 나의 솔직한 느낌을 말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아, 정말요?” 또는 “그런 뜻이 아니시죠?”라고 말을 달았다. 나는 들은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였지만, 교양 있게 즐길 수 있는 사고모임이 어색해지고 대립이 커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이 끝날 무렵, X씨가 “호쇼우씨는 아버지와 성격이 빼닮았군. 난 자네 아버지를 만나면 즐거웠네.”라고 했다. 내가 헛바닥을 붙들어 매고 잠자코 있어서 X씨는 우리가 뭔가 통하는 것이 있다고 오해했던 것이다. 하지만 X씨가 내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그는 내가 그에게 동의하지도 그와 통하지도 않았으며 그 대신 원하지 않는 토론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묘히 내 술책을 썼다는 사실을 눈치 챘을 것이다.

규칙 19

후보자를 평가하라

입사지원자를 면접할 때 필요한 충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친구 사귀기에도 적용이 된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첫 단계가 지났으면, 그 다음은 평가를 해야 한다. 당신의 직감에 주의를 기울여라.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마리가 있는지 귀를 기울이면, 유익하고 건전한 관계를 위하여 미래의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나거나 독이 되는 친구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론 부정적인 대화의 실마리가 항상 친교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요소들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사이좋아질 수 있는지, 또 서로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등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단계에서는 만남의 목적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을 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상황이 변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 친구도 그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없어진다. 반면, 대화 초반부터 상대방이 흥미를 보이며 관심을 가지고 열중하는 것은, 앞으로 당신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좋은 징조이며,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실마리가 된다.

□ 나쁜 친구사이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기경고신호”(40페이지 참고)를 주의하라.

레녹스의 교훈

내가 폴리스 백화점 휴스턴 지점에서 젊은 바이어로 일할 때, 레녹스 도자기그릇 판매원과 친하게 지냈다. 폴리스 백화점은 텍사스에서 가장 큰 레녹스의 바이어였고, 레녹스 영업담당은 휴스턴을 방문 할 때마다 항상 내게 저녁을 사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나는 우리의 우정이 바이어와 세일즈맨의 관계를 넘어 섰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달라스에 있는 니만 마커스 백화점으로 옮겼는데, 그 백화점은 레녹스 그릇을 취급하지 않았다. 나의 친한 친구였던 그 영업담당은 근처 포트워스에 살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한 마디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 정말 실망스러웠다.

나는 몇 년이 지난 후, 호쇼우 컬렉션에 실을 상품을 고르러 레녹스 진열실에 들렀는데, 거기에서 나를 그토록 반갑게 맞이해주었던 사람은, 바로 누구? 다름 아닌 그 “친구”였다. 그는 지금은 선물용 도자기부에 있었다(그리고 내 카달로그에서 제품판매를 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결국 다시 거래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정말 단순한 사업적인 친교일 뿐인 우정도 있다는 교훈을 얻었기에, 우정에 대한 큰 기대 없이 사업거래를 할 수 있었다.

조기 경고 신호

관계를 형성하는데 유의해야 할 경고 신호들:

1. 쉽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사람 : 부정직함에 익숙한 사람은 당신에게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 당신의 우정이 언제 신임을 잃을지 그리고 당신의 결함들이 언제 그 사람의 논쟁거리가 될지 모른다.
3. 무언가를 회피하기 위해 허풍을 떠는 사람 : 언젠가 당신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다.
4. 노골적으로 논쟁적이거나 공격적인 사람 : 누가 반기겠는가?
5. 피해의식이 있거나 부당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 : 이런 친구들은 당신이 대접을 해도 그들이 대접 받는 것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6. 너무 이른 시점에 너무 쉽게 많은 정보를 주는 사람 : 선불리 자신에 관한 말을 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의존적이든지 요구가 많다.
7.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하는 사람 : 믿을 수 없는 친구는 필요하지 않다.
8. 항상 당신의 어깨너머를 살피는 사람 : 만약 상대가 계속 당신보다 “더” 말 하고 싶은 상대를 찾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만두라.

규칙 20

잘 들어 신용을 구축하라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 신뢰일 것이다. 신뢰가 없다면, 우정에 확신도 없고,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 우정을 발전시킬 여지도 없을 것이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약(또는 일련의 작은 도약들)을 해야 하지만, 그만큼 위험가치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당신은 친구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종종 실수를 하더라도 친구를 밀어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친구에게 알려라. (우정에서 가장 큰 보람중의 하나가, 당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의 테두리 아래서 당신의 결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안전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항상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당신의 친구도 그런 마음이라는 점을 믿어라. 당신에게도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친구의 비밀을 지키라. 그러며 친구도 당신의 비밀을 지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당신이 친구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많이 표현하고, 친구의 그런 표현도 받아들여라. 많이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

친구에게 당신 자신에 관한 비밀을 털어놓아라.

규칙 21

균형을 맞춰라

건강한 친구관계에서는 동등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친구사이의 일상적인 대화는 서로의 경험과 느낌에 관한 것이다. 당신이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할 때는 친구는 기꺼이 듣는 역할을 할 것이고, 친구에게 고민이 있을 때에는 당신이 귀가 되어 줄 것이다. 로저의 친구 자크는 로저와의 우정에서 이런 측면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점심을 먹는 날 그는, “오늘 네가 아들 할래, 아니면 아빠 할래?” 라고 묻는다.

서로 정확히 똑같은 분량의 말을 하자고는 않겠지만, 그것에 대해 잘 인식하고, 한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재치 있게 반응을 해가며 얘기와 관련된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한 사람은 계속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듣는 것은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있는 것이지 우정에서는 아니다.

□ 다음에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서로 비슷하게 듣고 말하는지 확인하라. 만약 당신만 떠들고 있다면, 대화의 균형을 잡아라.

규칙 22

공감하라

좋은 친구는 공감은 하되 충고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제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조언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친구가 어린 시절의 숨겨둔 어두운 비밀얘기를 하거나, 부부생활의 개인적인 일까지도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는, 친구가 당신에게서 그냥 들어주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충고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당신은 그 대신 공감을 해야 한다.

너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공감만으로도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슬프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를 당신이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그 고통을 받는 사람이 외로움을 더는데 도움이 된다. 친구의 곤경에 대한 공감을 표현할 때는, 당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친구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문제가 있을 때, 친구와 함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충고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만약 친구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둘 다 기분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친구가 당신의 충고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마음이 조금은 상할 것이다. 그럼 최고의 충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당신이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친구에게 보여주고, 친구에게 정말 충고가 필요한 것 같으면 당신이 알고 있는 정신과 의사의 이름을 알려주라.

□ 다음에 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하면, 성급히 뭘 어떻게 하라고 충고하는 대신 당신이 친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라.

3장

진정한 대화를 하라

친구들에게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고,
묘비에다가 사랑했다고 쓰는 대신, 지금 표현해라.

-애나 커민스

잡담만으로는 우정을 쌓을 수 없다. 잡담도 필요한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진실한 대화가 있는 진정한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생각해 보라.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화가 없다면, 날씨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인생이 지루해질 것이다. 인사를 시작할 때의 무의미한 잡담의 양식을 넘어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에 불을 지피는데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규칙 23

이름을 기억하라

(그리고 당신의 이름도 밝히라)

대화가 잡담이건 진지한 대화로 진행되건 간에, 우리는 대화 시작에 앞서 자신을 소개하고 서로 이름을 교환한다.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우리는 종종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소개를 받자마자 방금 만난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다시 볼일이 있을까, 또는 다시 말을 하게 될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에 이름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사람을 만나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면, 소개받는 순간에 정신을 집중하고 소개 받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더 깊고 인간적인 사이가 될 수 있고 당신이 상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물론 말보다 행동이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다. 이따금 우리의 머리에서 이름이 슬그머니 잊혀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상대의 이름보다 함께 했던 대화가 더 기억이 날 때는, 상대방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나누었던 여류정치인 또는 초밥을 만드는 법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기억이 잘 난다고 하라. 그럼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당신이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을 용서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서운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가 들을 수 없는 거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살짝 물어보라.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기보다 “반가워요.”라고 하라. 어느 누구도 본인이 너무 잊혀 지기 쉬운 사람인 나머지 당신이 첫 만남을 까맣게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정직은 최고의 정책이다. “저는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라고 말하

고, 다시 자신을 소개하고 기억을 환기시켜줄 메모책자(도미니크 오브라언의 ‘이름이나 얼굴은 절대 잊지 말라.’라는 메모 책이 좋다)를 사서 교섭을 시작하라. 메모 책이 당신 기호에 맞지 않는다면, 기억력향상게임에서부터 최면술까지 장애를 극복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주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름을 기억하는데 집중하고 진정한 관심을 보여야만 한다.

이름을 잊어버리는 병의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기회가 된다면 가능한 한 많이 사람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보라. 사람들에게 서로를 소개 할 때는 다음에 당신이 그들을 만날 날을 각각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같이 만났던 사람을 상기시켜 주라. 철자를 가르쳐주거나, 운율 시처럼 특이한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라. 예를 들어, 로저는 예일대학 신입생이었을 때 학생자치위원회에 출마하였는데, 그때 “호쇼우와 함께하면 호사롭게 먹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이용했다. 그가 선거에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학급친구들이 그의 이름을 더 잘 기억 했을 것 같지 않은가!

□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줄 수 있는 당신만의 비법을 개발하라.

규칙 24

잡담을 최소화하라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도 필요한 잡담은 있다. 누구나 준비해와 쉽게 묻고 답하는 질문일 수도, 이견이 없을만한 의견일 수도, 또는 평범한 주제일 수도 있다. 잡담은 예측 가능하고 때론 재미있기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잡담을 싫어하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냉소적으로 답하거나 다른 뜻밖의 반응을 보이면서 평범하게 대답하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누가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네, 이 빌어먹을 사타구니 통증만 없으면요.” 혹은 “안녕하죠, 내 고양이를 잃어버린 것 외에는 말이죠.”와 같은 대답을 듣길 원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저 “네”라고만 하면 된다. 때로는 잡담을 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잡담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서로를 더 잘 알아 가는데 방해가 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잡담을 생산적으로 잘 이용하고, 이를 버팀목으로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명심하라. 잡담 같은 문답은 한번이면 족하다. 그 다음은 더 의미 있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옮겨가야 한다.

잡담이 끝나면 바로 물어볼, 생각을 하게끔 하는 다섯 가지 질문을 적어보라.

진부한 생각을 떨쳐라

대화를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잡담들은 많다. 다음은 몇 가지 피해야 할 사항들이다.

1. 누군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면, “건강은 어떠신가요?”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2. 결혼식장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신혼여행 어디로 가요?”라고 신랑과 신부에게 묻는다. “출산이 언제예요?”라는 질문을 산모들마다 지겹게 듣는다. 식상하지 않은 질문을 생각해 보라.
3. 스포츠에 대한 상투적인 말들은 오래전부터 대화를 시작할 때 사용되어 왔던 것이지만, 오히려 모험이 될 수도 있다. 열렬한 팬을 만나 화제를 바꾸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기상학자나 농부가 아니고서야 날씨에 대한 대화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다지 없다.

일상 상호교류에서 거의 이러한 잡담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재빨리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신의 목표는 빈 말을 떠들어 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상대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규칙 25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라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대화를 계속하고 싶은지 서로가 생각해본다. 상대방이 입을 열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그 화제를 이어가라. 파티에서는 그 주인을 어떻게 아는지, 또는 오르되브르(수프 전에 나오는 가벼운 전채요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어 볼 수 있다. 문화행사에서는 어떻게 이 행사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 볼 수 있다. 그 행사에 관련된 화제로 적절하게 대화에 끼어 들 수 있지만,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살짝 드러낼 수 있는 화제면 좋다.

당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신을 드러내면 대화를 주고받게 되고, 어떤 주제에 대해 열정을 보이면 그것이 상대방에게로 전달되어 상대도 열정을 보이게 된다. 가벼운 수준의 대화는 편안한 속도로 본 모습을 드러내주게 해준다. 하지만 정치나 종교 이야기는 피하는 게 좋다는 오래된 격언도 있으니, 상태를 탐색할 때는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화제로 시작하라.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해보면서, 당신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는지 보라.

규칙 26

전략적으로 잡담을 이용하라

어색한 순간이나 말이 끊어졌을 때 채울 수도 있지만 별 의미 없는 대화를 하기 위한 성의 없는 말들에 주의하라. “다음에 만나자”(별로 그럴 생각 없어도 건넌다)와 같은 전형적인 잡담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를 때 종종 사용한다. 진심이 아니면서 이런 말을 할 경우에는 잘해도 성의 없는 사람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어색한 순간을 매끄럽게 넘겨야 할 때는 사실상 잡담이 효과가 있다. 과도기적 잡담이 피상적 대화를 더 깊은 대화로 이끌 수 있는 것처럼, 유용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잡담이 있다.

“유지”성 잡담. 현 상태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또는 대화를 좀 더 피상적인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라. 양측 모두 동의하는 화제나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시사문제를 선택하라. 가볍게 대화하고 출구 잡담으로 옮길 준비를 하라.

“출구” 잡담. 대화에서 완전히 빠져 나올 때 사용한다. 상대방에게 즐거운 담소였지만 가봐야 한다고 말하라(약속이 있어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전화하러 가기 위해서 등의 핑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잘 알고 있다면 잡담의 본 성질을 잘 이용해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안전하게 다른 누군가와 더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다.

□ 전략적으로 잡담을 하기 위해 논쟁이 되지 않는 중립적인 화제를 고르라.

얼간이 옆에 앉기

몇 년 전 여름, 나는 낸터컷에서 열린 디너파티에서 글렌 클로즈와의 대화를 이어가려고 다소 긴장하면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연극계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어디 출신 인가요?” “어느 학교 출신인가요?” 등 이런 흔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퍼붓고 있었는데, 마침내 글렌이 “잡담은 그만하고” 서로를 더 알아 가는 게 어떨냐고 제안하였다.

그녀가 내게 던진 여러 질문 중 “대학교 때는 어떤 사람이었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힘들었다. 잘 그러지 않는 편인데도 나는 말을 더듬고 웅얼거리다가 만약 내가 대학생 때 그녀가 나를 봤으면 아마 얼간이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맙게도, 그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얼마 후 우리는 저녁을 먹었던 식당 근처 부두 길을 산책했는데, 그녀는 한 가게로 들어가더니 얼간이 사탕을 사가지고 와서 내게 줬다. 나는 집으로 사탕을 가지고 왔고, 그 여름의 아빠의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참 좋아했다.

불필요한 잡담을 피하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질문을 하면, 더 쉽게 상대방의 입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당신의 새로운 친구가 될지 또 누가 아는가?

규칙 27

양파 껍질을 벗겨라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는지 파악이 될 때까지 충분히 만나고 교류를 하고나면, 피상적인 것을 너머선 대화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시기에 자신의 모습을 더 보여주고, 상대방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다.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살펴보면서, 너무 개인적이지 않고 대화를 더 할 수 있는 화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잘 지내느냐”는 질문에 경탄스러운 반응을 하며 대답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인생이 행복하세요?”라고 할 필요도 없다. “당신 일에서 어떤 것이 가장 즐거우신가요?”와 같이 기본화제에 대해 더 깊이 다루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해 보라. 그것이 기억할 만한 대화가 된다면 또 다른 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두세 번째 만남에서는 잡담의 양을 줄여라. 지난 만남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나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다 최근 근황까지 이야기하며 모두가 편하게 해주라. “지난번에 우리 다큐멘터리에 대해 말했죠.”라고 말하고, “오스카상 후보들을 보셨나요?”라고 다음 질문을 하거나, “지난번에 했던 중국에 대한 얘기가 참 흥미로워서 그와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읽어 보셨어요?”라고 하라.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미래에 친구가 될 상대와 서로 편안함을 느끼기 전까지는 종종 잡담을 나누는 관계에 머물기도 한다. 배우고 있는 과정이니,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인에 관한 첫 번째 장을 복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보충을 하고나서 진실 된 대화로 넘어가라.

피상적인 대화에서 의미 있는 대화로 옮겨가는 시점이 중요하다. 이제 평범한 당신의 모습을 더 드러내고 자신의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다루어야

할 때다. 자, 이제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몇 가지 실마리도 가지고 있으니, 다음 대화의 단계로 들어가서, 양파의 껍질을 한 껍질 더 벗겨라.

정말 운이 좋은 경우, 잡담으로 시작해서 다음에 그 내용을 기억해내고, 또 잡담으로 최근의 근황까지 알릴 필요도 없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신의 직관과 상호관심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잡담을 아예 건너뛰고 첫 만남 초반부터 양파의 알맹이로 바로 파고들어도 된다.

□ 친구삼고 싶은 사람에게 당신에 관한 밝히지 않았던 사실이나 이야기 하나를 해준 뒤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라.

규칙 28

대화를 의미 있게 만들어라

대화의 기술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깊은 대화가 오가게끔 대답을 해주는 스킬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듣는 기술과 잡담의 사용법을 익혔다면, 당신은 이제 새롭거나 알고지낸 친구 모두와 의미 있는 대화를 즐길 준비가 된 것이다.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정말 모든 중요한 대화에는 몇 가지 공통요소가 있다.

- 대화는 상호작용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녁 파티 정도는 좋지만 디스코 클럽은 안 된다.
- 대화의 주제는 당신에게 중요한 주제여야 한다. 대화의 주제가 심각하고 무거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있는 내용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 직업, 종교, 목표와 같은 변한 주제들보다는 사랑, 죽음, 아프리카 제비꽃과 같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면 좋다. 대화의 이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정치나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란 법 없다. 실컷 이야기하라!
- 대화하는 사람들 서로가 자신을 더 드러내야 한다. 솔직하게 그 사안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지 않는 한 피상적인 대화를 넘어설 수 없다. 기억하라. 진정한 우정은 의미 있는 관계를 기반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 감정을 드러내도 좋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말하면서 흥분하고, 행복해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대화를 하다가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상대방이 아닌 그 안건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라. 상대가 오랜 친구라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다면 좀 어색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서로 거기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호간

의 신뢰가 쌓이면 다시 그 주제를 다루어라.

- 다음번 대화에서는 당신이 정말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어라.

4장

친구의 범위를 확대하라

가족은 운명이 정해주지만

친구는 당신이 정한다.

-자크 텔리

언제나 크렘블레만 주문한다면 당신이 카놀리를 좋아할지 안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세상은 당신이 만든 크기에 따라 클(그리고 맛있을!)수도 작을 수도 있다. 그 크기만큼의 맛을 느낀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우정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언제나 삶의 질을 높여주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다. 기존의 인간관계만을 고집하느라 새로운 친구를 사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신의 일상의 틀을 깨는 것이다. 시작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크게 한입 베어 물고 당신의 새로운 모험들 각각의 맛을 느껴보라.

규칙 29

당신의 태도를 고치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빠져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자세이다. 평상시에는 전혀 만나지 않을 사람과 기꺼이 만나보는 것만으로도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길 수 있다. 출근할 때도 새로운 길로 가보고, 구내식당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보는 것과 같이 간단할 일일지라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시도를 함으로써 곧 이전엔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완전히 다른 부류의 새 친구들을 만들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지도 모른다! 지나친 과장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가능한 일이다. 내 친구 한 명은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고 어느 날 오후 그의 개와 새로 생긴 개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만난 여성과 결혼했다.

당신이 편안한 영역 밖으로 발을 딛을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기회의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당신의 교체범위를 확대하고, 더 넓은 그물을 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또는 그 외에 어떤 식의 당신이 좋아하는 은유적 표현이든지간에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인사를 건네라.

규칙 30

일상의 습관을 바꾸라

우리는 각자 매일 똑같이 하는 일과 몸에 베인 행동패턴이 있다. 아래는 당신의 일상습관을 바꿔서 더 자연스럽게(그리고 재미있게)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다.

- 아침식사를 할 때 서두르지 말고 여유 있게 하라. 평소와는 다른 커피숍에 들러라. 몸을 숙인 채 커피를 훌쩍거리며 신문만 읽고 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꼭 인사를 건네라.
- 점심시간은 하루 중 당신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다. 점심을 싸서 가까운 공원에 가서 먹어라. 정오의 햇살을 즐기며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어라.
- 저녁식사(또는 술 한잔하는 시간)는 친구들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때이다. 이때 일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식당이나 술집을 찾아가 보라. 칵테일과 티를 열어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을 초대하라.
- 두 지점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일지는 몰라도 가장 재미없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다른 길로 가보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보라.
-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해 왔다면, 가까운 서점에 가서 책을 뒤적거릴 생각을 하고, 편안한 공원 벤치를 찾아 TV 대신 석양을 보라.
- 매일 정해진 분량의 이메일에 답하는 것이 단순한 일상 이상이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연락이 뜸했던 친구와 다시 연락하는 계기로 이용하라. 더 좋은 방법은 카드를 손으로 직접 써서 옛날방식으로 보내라.
- 책을 읽기를 좋아한다면 독서클럽에 가입하라.
- 영화를 빌려보며 주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지인들을 몇 초대해서

영화를 보며 밤을 보내라.

- 당신이 사는 동네, 아파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당신과 공통점을 나누고 있다. 그러니 자신을 소개하라. 많은 오래 지속되는 우정들은 뒷뜰 울타리에서 또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루어졌다.
- 일을 하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가벼운 목례에서 그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업무상 전화나 이메일로만 알고지낸 직장동료와 직접 만날 약속을 잡아라.

편안한 경계 밖으로 발을 내 디을 때는 극도의 떨림과 긴장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한 도전을 받아들여라! 새로운 사람을 자주 만날수록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편해진다.

당신의 일상 습관 중 하나를 골라서 바꿔보라.

규칙 31

합류하라!

이른바, 다양함은 인생의 양념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들의 정상궤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아주 불편함을 느낀다. 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몸에 베인 습관을 바꾸는 것을 그저 불편 그 자체이고, 심지어는 두렵다고 여기는 것이다. 일상의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얼음물에 다이빙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해결책이 있다. 당신과 하나(또는 그 이상)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기존의 모임에 합류하라. 처음 만나 뭘 얘기해야 할지에 대한 스트레스는 만나야 되는 이유에 붙들어 매 놓으면, 당신이 편안하게 됨에 따라, 긴장을 풀고, 주위를 살펴보면, 상호교류를 할 수 있다. 그 후엔 친구를 안 사귄다면 말도 안 된다.

모임에 가입하거나 강습에 등록을 하려거든 일단 당신이 이미 즐기고 있는 활동들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의욕적이라면, 스카이다이빙, 단편소설 쓰기, 마라톤 달리기 등과 같이 항상 해보고 싶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해보라. 세상을 정복하거나 극적으로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새 관찰하는 법 수강하기, 뜨개질 배우기나, 셸리의 경우처럼 완벽한 추수감사절 칠면조요리교실에 참석하기와 같이 간단한 것일 수 있다.

셸리는 주방용품점인 쉬르다따블레에서 제공하는 요리교실에 등록해서 그녀의 매력을 발산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미식가들과 새로운 우정도 쌓았다.

강습과 동호회는 운동, 자선, 예술, 정치 등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든지 간에 장기간의 헌신을 요구할 필요도 없으며, 당신이 좋아하는 느와르 영화를 보거나 유명음악밴드의 원음음반들을 듣는 것처럼 수동적 일 수도 있다. 심지어 특정 공포를 극복하게해주는 수업에 참석하고 싶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물을 두려워한다면 초보수영교실에 등록하라. 일단 발가락에 물을 적히기라도 하면 적어도 한명의 새로운 친구를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강습이나 동호회 관련 활동에 가입하라.

동창회 회비

1995년 내가 휴스턴에 있는 폴리스 백화점 지하에서 커튼을 다루는 일을 하며 소매업에 대해 배우고 있을 때였다. 대학 룸메이트였던 마이크에간, 웨스덕슨, 덕그레이브가 5주년 동창회를 위해 뉴 헤이븐에서 뭉치자고 제안하였다. 휴스턴에서 그 멀리까지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얼마 되지 않는 내 월급을 그런데 투자 할 만큼의 열정도 없었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대학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언제든지 내 룸메이트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또래 녀석들이 그렇듯 내 룸메이트들은 아주 설득력이 있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이스트코스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그건 내가 한 가장 잘한 일들 중 하나가 되었다.

대학생활이 내게 보람되기도 했지만, 몇 년 동안의 대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도 많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참전 군인들의 귀환으로 우리가 졸업할 때는 예일대설립 이래 졸업생이 가장 많았다. 그 동창회에서 나는 책도 몇 권 쓰고 『니콜라스와 알렉산드라』라는 영화로 폴리처상을 수상한 밥 메시를 만났다. 동창회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밥과 나는 우정의 의미에 대한 긴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그 이래로 오십년 동안 친분을 쌓아오고 있다. 전에 학교에서 들었던 레리 맥쿠에이드도 만났다. 그는 축구 팀원이었으며, 성적이 우수한 미국 대학생과 졸업생으로 조직된 파이베타카파클럽의 회원이었고, 로즈 장학생이었다. 축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가 꿈꾸던 것이었다. 그런 친구와 내가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서로 자리를 함께한 것을 즐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들 중 한명이 되었다.

내 동창회에서 모든 만남이 즐거웠던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 바보 같았던 친구들이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바보 같은 모습을 보고 종종 실망하기도 했다. 그 녀석들은 역시나 바보 같은 증권거래인, 변호사가 되어있었다. 고등학교 육상경기 팀에서 뛰든지 다 알고 있는 척 잘난 체 했었던 한 남자아이는 여전히 잘 난체하는 녀석이었는데, 동창회에서 내게 생명보험을 팔려고 졸라댔다. 그것도 결혼도하지 않은 내게 말이다! 내게 생명보험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동창회에서 밥 메시와 레리 맥쿠에이드 그리고 다른 새로운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 동창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해 오고 있다. 나는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과 적어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종종 몇몇 안 되는 바보 같은 녀석들보다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공통점을 찾게 된다.

규칙 32

동호회를 만들라

마음에 드는 기존 동호회가 없다면, 당신이 직접 동호회를 만들라. 여기 몇 가지 동호회가 있다.

- 천문학 그룹 : 회원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와서 별을 관측한다.
- 투자 동호회 : 회원들은 투자계획전략을 점검한다.
- 요리 동호회 : 회원들은 전통메뉴를 계획하고 각자 집에서 만든 요리를 가지고 온다.
- 외국어 동호회 : 회원들은 만나서 불어(또는 스페인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등)를 공부한다.
- 갤러리 동호회 : 회원들은 미술관을 방문하고 난 후 느낀 점을 식사를 하며 나눈다.
- 특허출원 동호회 : 회원들은 여러 가지 발명을 하고 서로 발명품을 보여준다.
- 요가/필라테스 동호회 : 회원들은 강사에게 월 회비를 지불하고 회원들 집에서 소그룹 동호회 수업을 받는다.
- 초보 부모 동호회 : 회원들은 만나서 새 아이를 가지는데 어려운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당신이 직접 동호회를 만들어라.

대인과 잡담하기

내 여동생 리젠은 명석한 연사들이 더 많이 달라스로 와줬으면 하고 생각했다. 동생은 달라스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특강 동호회인 ‘흥미로운 사람들의 모임’을 시작하여 연사들을 달라스로 초대했으며, 다른 많은 연사들도 꼭 그녀처럼 그들의 연설을 듣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사들 중에는 베스트셀러 작가, 할리우드 감독, 정치 운동가들도 있었다. 현재 350명의 회원이 있는 이 모임은,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 자유롭게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45분 동안 강연을 듣고 난 후, 간단한 리셉션이나 원탁회의를 연다. 그 리셉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우정, 이메일 교환, 아이디어 포럼 등이 불꽃처럼 시작되었다. 그리고 리젠에게도 이 모임은 인생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규칙 33

여행을 떠나라

여행이 우리의 사고를 넓히는 경험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 우정을 넓히는 경험도 되지 않을까? 가까운 곳이든 세계여행이든 상관없다. 낯선 사람들이 있고 당신의 관습이 통하지 않는 낯선 곳을 경험하는 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모험을 선사할 것이다. 우리 사촌 중 한명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하곤 했다. 그의 아들이 항상 놀려댔던 것처럼, 그는 그럴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친구의 이름으로 가득 찬 서류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그래도 여전히 더 좋은 점은 그는 그 중 많은 사람들과 여전히 연락을 하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데 여행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여기 여행하는 동안에 관계를 맺는 비법이 있다.

- 현지인을 만나라. 혼자 계획하는 것보다 현지인의 도움을 받으면 그 곳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새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당신과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 식견을 넓힐 수도 있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다른 여행객들에게 말을 건네라. 다른 여행객들도 새로운 곳에 있는 것이니, 당신은 그들과 이미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이를 사람들을 알게 되는 가교로 삼아라.
- 외국 여행객들을 접대하라. 해외에서 만났던 지인들에게 그들이 준 호의를 갚거나, 교환서비스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접대를 하겠다고 제안하라. 두 가지 방법 모두 당신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우정도 쌓을 수 있고, 당신의 나라를 구경시켜주다 보면 자국을 새로이 보게 된다.
- 오래된 친구와 여행을 하라. 한동안 못 만났던 친구와 여행을 하라. 자주 만

나지 못했던 친구와 “같이하기” 또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 최근 여행의 동향이다. 어딘가에 큰 집을 빌려서 옛 학교 친구나 직장친구, 혹은 어릴 적 친구 몇 명과 모여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말을 보내라.

- 가까운 사람과 멀리 여행을 떠나라. 아는 사람과 여행을 하는 것은 그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일상적인 환경을 벗어나 우정을 쌓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다시 돌아 왔을 때 소중한게 간직하고 우정을 더 쌓게 되는 새로운 추억이 생기게 된다.

□ 이번 시즌에 떠날 여행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돌아와 이메일이나 쪽지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라.

규칙 34

등지가 아닌, 별집을 만들어라!

별집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는가? 1960년대 헤어스타일(그것도 또한 인상적이긴 하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몇 개의 정교하게 설계된 별방들이 모두 연결된 별집은 말 그대로 사회활동으로 뽐낼거리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가능성을 지닌 별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그리고 그 친구들과 기존의 친구들을 연결시켜주는) 당신의 능력은 대단히 커질 것이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동향예측가인 페이스 팝콘은 “등지 틀기”라는 사회학적인 개념을 만들기로 유명하였다. 그녀는 그 개념을 익숙한 테두리 안에서 은신처를 찾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채플힐에 있는 소비자태도를 연구하는 마케팅컨설팅회사 양켈로비치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별집 만들기”를 통해 서로 관계를 형성한다고 했다. 켈리는 라이프스타일 작가로서 일을 하며,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면서, “별집 만들기” 혹은 혁신적인 그룹 활동을 창안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새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 도전해 보라. 안전하게 보호된 당신의 등지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별집을 만들어 보라!

□ 그룹 활동에 친구들과 그들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당신의 사교계를 넓혀라.

작은 벌집 만들기!

다음과 같은 것들은 모두 사람들을 초대하기에 재미있는 활동들이다.

- 포커 나이트 : 포커게임을 주관하고 친구들에게 당신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라. 그럼 당신의 집은 새로운 친구들로 당신의 집은 풀 하우스가 될 것이다!
- 게임 나이트 : 당신은 카드게임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게임 종류를 좋아하며, 게임은 상대방에 대해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체스처게임, 보드게임, 잡학퀴즈대회, 의자에 먼저 앉기 놀이와 같은 게임에 사람들을 초대하라.
- 포트럭 오르되브르 파티 : 손님들이 도착하면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들고 즉석 사진기로 사진을 찍고, 각 음식에 만든 사람의 공을 보여 주도록 이름표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요리를 인정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보아라.
- 월례 토론회 : 그룹의 관심도에 따라 매달 다른 토론주제를 선정하라.
- 물건 찾기 게임 : 돈 안들이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포인트 점수목록을 만들고, 사람들을 여러 그룹으로 섞어서 그들에게 두 시간 동안 찾을 수 있는 물건을 모으게 한다.

규칙 35

양보다 질을 강조하라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당신은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가 빠르고 미친 듯이 돈을 긁어모으듯이 당신의 주소록에 이름을 잔뜩 적어 넣고 전화번호를 모으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하고 깊게 심호흡을 하라.

한 명(또는 두세 명)의 친구를 더 사귈 여유가 있더라도, 성급하게 진행해서 질보다 양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실수는 하지 말라. 하지만 오해는 말라. 당신의 삶을 재미있게 만드는 다양하고 흥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아주 좋고, 인생을 개선시키는 일이다. 물론 많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우정의 목표는 서로에 대해 정말 알아가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그것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니 당신에게 중요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과 일대일로 하는 활동에 참여할 삶의 여유를 가져라.

한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와 함께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라.

규칙 36

다시 연락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라

뒤뜰 너머 도사리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세계 외에도, 가상의 세계이지만, 컴퓨터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아직까지도 전화번호부를 이용해서 오랫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친구를 찾고 있다면, 이제는 정보화시대에 발을 들여놔야 할 때다. 월드와이드웹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공통점을 찾고, 서로 연락 할 수 있는 무한의 길을 제공해 주는 “가지 뻗기”의 최후의 개척자이다. 사회 네트워크, 도시부족, 군집생활은 프렌스터, 클래스메이트, 매치, 크레이그리스트, 마이스페이스와 같이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웹사이트에서 나온 인간기반현상 중의 몇 예들이다. 대화방, 유저포럼, 핸드폰문자메시지 기술을 넘어 발전할 가능성은 무한하다.

로저는 유년시절, 군대시절, 고등학교시절 친구들이든 과거의 친구이나 친한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때 마다 구글, 애니후, 또는 그 외 다는 “사람 찾아주기” 웹사이트에 이름을 입력해서 검색해본다.

73년 전인 어릴 적 친구를 찾는 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는 인터넷의 서비스를 이용해 놀랍게도 해냈다. 최근 로저는 그의 고향인 신시네티에서 그의 가장 오랜 친구인 제이(“꼬맹이 제이”)에커트를 찾아냈고, 제이는 그들의 다른 오랜 친구인 바비헌시커가 인디애나로 이사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로저는 오랜 유년시절 사진들을 그들에게 보여 오랜 추억이 떠오르게 했다. 로저의 자녀들은 그 사진이 누구의 사진이며 왜 아버지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오래전에 자신을 찍은 사진을 보며 즐기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보람된 일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꼬맹이제이”가 아닌)제이와 밥, 그리고 로저가 이메일, 편지, 전화로 서로 연락을 한 후에,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신시네티에서 멋진 동창회를 열 계획을 했다. 제이가 운전하는 차에 그 세 명의 친구가 타고 그 옛 동네

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집집마다 누가 어디에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저녁식사에서 로저는 동창회에 유년시절 단체사진이 담긴 배지를 가지고 왔고, 제이는 그 “녀석”들의 그 당시 주소가 적혀있는 깃발과 식탁 중앙에 놓을 꽃과 어울리는 가슴에 다는 꽃을 준비했다. 여기에서 이메일이나, 검색엔진과 같은 기술이 없었다면 로저는 이렇게 소중한 우정을 쌓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 주의해야 할 점: 기술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쉬운 좋은 방법이지만, 직접 만나 서로 알아가는 것과 같이 진실 되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결성을 향상 시켜주는 인터넷의 훌륭한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라. 하지만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서만 세상을 만나서는 안 된다. (가끔 한 번씩이라도)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상호교류를 해야 우정도 진정으로 꽃필 수 있는 것이다.

□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이름을 등록하라.

친화적인 기술

컴퓨터기술에서 친구를 찾고 우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수단들을 찾을 수 있다.

- 검색엔진 :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다시 연락하고 싶은 친구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세 개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라. 구글닷컴, 야후닷컴, 애니후닷컴과 같은 사이트들이 있다.
- 특별관심사 사이트 : 종이접기에 관심이 있고 종이 접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싶다면, “종이접기동호회”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곧 종이접기에 대한 정보를 나누게 될 것이다. 밋업닷컴은 공통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동호회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다.
- 게시판 및 메시지 포럼 : 크레이그스리스트, 시티서치닷컴과 같은 마을활동들을 다루는 지역 웹 커뮤니티들이 많다.
-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 사교계를 넓히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이다. 프렌즈터닷컴에 들어가 보라.
- 파티플래너 : 초대장을 보내고, 회신정리하고, 알림장을 보내면서 모임을 유치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다. 이바이트닷컴이 그 중 하나이다.

5장

사후관리를 하라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은 빨리 되지만,
우정이란 천천히 익은 과일이다.

-아리스토텔레

“씩툼”이라는 단어가 종종 우정에 쓰이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씨를 심는 것처럼 우정의 꽃을 피우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심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우정에 있어서 비료는 사후관리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사후관리는 수동적으로 팔짱끼고 앉은 채 우정이 싹트기만을 기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인생에서 우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우정을 더욱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물론 노력을 기울여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노력보다도 훨씬 쉽고 힘도 덜 들여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규칙 37

사후관리, 사후관리, 사후관리를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후관리라고 하면 사업거래와 연관하여 생각하게 된다. 사후관리란 면접이나 중요한 모임 후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그것 또한 똑같이 개인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우정을 쌓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정에 있어서 사후관리는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사후관리란 상대방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상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관심을 표현하고, 단순히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방식이다. 바로 그거다. 의무도 숨은 동기도 없으며, 투자보상에 대한 기대도 없다. 하지만 사업처럼 친구하고도 효과적으로 사후관리를 한다면 분명히 셀 수 없이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것이다.

우정의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 상대에게 당신이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전화, 메모, 온라인 이메일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 연락을 하여야한다. 그러면 기분도 좋고, 대부분의 경우 깊게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어쨌든,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마워하는데 좋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때를 제외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감사, 칭찬, 친절한 관심을 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최근에 만났던 친구에게 우정을 위한 “우호적인 사후관리전화”를 걸라.

규칙 38

“관심”을 보여라

우리 가족의 친구관리 개념은 페이 할머니에 의해서 정해졌다. 할머니께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에게 손을 내민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관심”을 보이셨다. 역수같은 비가 내릴 때 할머니께 우산을 빌려주거나, 공짜로 뭘 주거나, 정말 무거운 그녀의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것처럼,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라면 페이 할머니에게서 감사의 전화나 편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페이 할머니에게 감사전화를 건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감사전화를 받았고, 이런 주고받기의 상황은 끝없이 계속되었다.

페이 할머니는 그녀의 인생에서 만났던 모든 것에 관련된 내용이 적힌 메모와 목록을 아주 많이 가지고,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사람들과 서신연락하면서 보냈다. 그 결과 그녀는 아주 많은 친구들이 있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가 이런 “관심”을 쏟는 이유는 단지 그녀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가졌으면 했기 때문이다. 페이 할머니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었지만, 고마운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과 연락하고 끊임없이 감사했다.

옛날에 에티켓을 가르쳐 주는 책자에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자비로운 행동에도 감사의 카드를 보내기를 “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적혀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자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어야 한다. 우리의 좋은 친구이자 에티켓 전문가인 래티샤 볼드리지에게서 배웠듯이, 에티켓은 정말 친절과 배려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누가 틀렸다고 하겠는가? “에티켓의 법칙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진 것은, 에티켓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행동하는데 편안하고, 긴장을 풀고,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느끼도

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명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신다.

물론, 아이였을 때 크리스마스 오후에 팔에 쥐가 나도록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이 단지 귀찮은 의무 이상이었다는 것을 믿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나중에 커서 티쉬 볼드리지의 견해를 조금 성숙하게 이해를 하고,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표현이 풍부하고, 창조적이고, 친절한 편지들인 할머니의 유산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예술이며 즐거움이 되었다.

우정을 맺거나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편지를 자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의 의사소통기술에 상관없이, 시간이나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요점은 당신과 당신의 친구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할 일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 카드와 우표를 사놓고 친구에게 “관심”의 편지를 보내라.

규칙 39

애정을 표현하라

비즈니스에서의 사후관리는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이 따른다. 이는 미팅 후 향후 목표를 분명히 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료들에게 안전을 전달하기 위해 행해진다. 거기에 따르는 규칙도 있다. 하지만 우정에 있어서 사후관리는 그렇게 엄격하지도 않고, 계획 없이도 창조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 대가는 덜 가시적이다. 즉 계산 될 수도 없지만(그래선 안 되지만), 그렇게 한테 대해 승진을 하거나 급여인상을 받는 것만큼(또는 그 이상)의 기쁨의 보상을 느낄 것이다!

가장 좋은(그리고 가장 쉬운) 우정의 사후관리의 형태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칭찬의 형태일 수도 있고, 한동안 못 봤던 지인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따르거나, 단지 오랜 친구를 따뜻하게 안아 주어야겠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관계마다 각자 적합한 애정 표현의 수위를 잘 재야한다.

당신의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무엇이던지 간에, 당신의 진심과 온정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거나, 기존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

사랑하는 친구를 포용해주라. 마음을 듬뿍 담아서!

“친절한”

베이커씨 가족

나는 1953년에 제대하고 바로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으로 이사를 갔다.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온 좋게도 나는 “능력 있는 독신남”으로 한 파티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나의 사회생활 초기에 정말 필요한 힘을 받았다.

나의 데이트 상대 중 한 명은, 보너 베이커라는 이름의 사랑스러운 젊은 여성이었다. 나는 몇 번 그녀와 파티에 동행했고, 그녀의 부모님도 알게 되었다. 그분들은 나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나는 폴리스 백화점 도자기그릇 바이어로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접시와 크리스탈을 집에 갖고 있는지를 보는데 관심을 가졌는데, 베이커 여사는 그녀의 컬렉션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로베트와 조안 베이커, (부시 대통령 시대에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된)보너의 오빠인 짐 베이커를 포함한 베이커 일가의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그 가족 모두 나를 환영해주었고, 내가 휴스턴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었다.

최근 나는 베이커씨 가족들에게 그들 가족이 오래전 내게 얼마나 의미가 컸었는지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 동안 그들 중 한명도 만나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외엔 다른 목적이 없었다. 그렇게 하니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규칙 40

작지만 진심으로 생각하라

친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 진심을 담아서 늦기 전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근에 헤어진 애절한 연애이야기를 쏟아내면서 두서없이 하는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준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면, 일단 전화기를 들어 고맙다고 말해보자. 현악사중주악단과 해질녘 멋진 장관이 어우러진 근사한 저녁식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저녁은 특히 마차를 타면서 하는 화려한 연애에는 어울리지만, 당신 친구에게는 당황스러울 것이다. 전화를 거는 것 외에도 효과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소한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

- 쪽지를 보내라. 전자기기를 잘 다루든, 옛날방식대로 편지를 쓰는 것을 좋아하든 상관없다. 이메일, 팩스, 우편, 쪽지를 보내라. 어떤 수단을 선택하든간에 당신이 배려하고 있는 마음을 실패 없이 표현할 수 있다.
- (작은) 선물을 하라. 뜻밖의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는가. 둘이 찍은 사진, 그가 좋아 할 것 같은 책, 그녀가 좋아할 것 같은 화분 등 작지만 의미가 있는 선물이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이 보이면 보내라.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 도움을 주라.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걸 알면 도와주는 게 어떨까? 저녁에 그의 아이들을 보살피 주거나, 그녀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주라.
- 축하한다고 말하라. 당신이 친구의 크고 작은 업적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에 친구는 감동을 받을 것이다.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당신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당신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말하고, 안부인사, 포옹, 칭찬을 하고, 왜 그들의 우정에 관심이 있고, 감동을 받고, 위안이 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이유를 꼬집어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표현은 우정의 근본적인 것이며, 표현을 하는 것은 당신에게 크나큰 기쁨이 되고, 그 표현은 확실하게 당신에게 되돌아가게 된다. 사람들에게 말해주라!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선물 중 하나이다. 아주 작은 고마움의 표현도 큰 보답을 받게 된다.

□ “네 생각이 나.”라고 쓴 편지를 친구에게 보내라.

파일과 친해지라

나는 정리하기를 좋아한다. 나의 이런 성향은 내 일에서 뿐만이 아니라 남들의 일에게까지 뻗는다! 최근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내 친구 제니퍼는 그녀의 책상을 정리하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나는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점심 데이트를 하는 대신, 나는 그 시간에 제니퍼의 파일시스템을 만들어주었다. 내가 그녀의 서류더미를 파고 있는 동안, 제니퍼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에 제니퍼는 내게 새 친구를 소개해주고, 저녁 파티에 일찍 와서 나를 도와주는 등 말보다 행동으로 다양하게 그녀의 우정을 표현했었다. 제니퍼가 초보 엄마로서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은, 간단하게 카드나 선물을 주는 것 보다 우리 두 사람에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규칙 41

칭찬해 주라

누군가를 칭찬하는 데는 아주 조금의 노력만 있으면 된다. “전자메일을 참 잘 보내네요.” “항상 상대를 반겨주는군요.”와 같은 말은 최고의 응답자나 사회자들에게서 쓰이지 않는 말들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렇게 가치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 심지어 그러는 편이 훨씬 낫다.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가장 비열한 사회적 상호작용인 알맹이 없는 칭찬의 남발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찬사를 받거나 칭찬, 사랑, 고마움의 표현을 받는 입장이 되어본 적이 있다면 그 느낌이 좋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정말 기분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그런 말을 들려주고 싶은 친구에게 당신의 생각을 직접 말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의 기분을 좋게 했던 당신 친구의 작은 모든 행동들에 감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냈을 때 바로 그 의미는 아주 커지는 것이다.

오늘 친구에게 칭찬하라.

규칙 42

실수하지 말라

친구를 사귄 때 처음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할 시점은 더 알고 싶은 사람을 만난 직후이다. 그 때가 바로 “공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순간이다. 즉, 첫 만남 후 너무 오래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래야 서로의 마음속에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어, 우정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당신의 열정을 보여 줄 수 있다. 쉽게 말해, 만약 그 새로 만난 지인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을 했으면 지금이 사후관리를 할 때이다.

편안하게 느끼는 어떤 연락수단을 사용하든지 간에, 상대와의 만남을 얼마나 즐겼는지 표현하고, 가까운 미래에 다시 만나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제안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전에 말했던 내용에 대해 말을 하거나, 처음 만나 인사할 때와 두 번째 같이 만났을 때와 가교를 놓기 위해 찾아낸 공통의 유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라.

뒤늦은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만약 사후관리를 빨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우정을 날리는 것은 최악의 해결책이다. 대신에 늦게라도 사후관리를 하라.

모든 상황에서처럼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사후관리를 할 때 사과와 비난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상대방에게 당신과의 이전의 만남을 상기시켜주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라. 진정한 만남이었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노력에 감사할 것이고 당신은 그때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사후관리가 조금 지나치게 보이지 않을지, 상대방이 당신 얘기를 들으면서 귀찮아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면, 이 말을 기억하라. 모험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게다가, 누구나 고맙다고 하는 것에 고마워한다!

□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즐거웠다면, 즐거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후관리를 하라.

사진은 수천 마디를 대신 한다

전설적인 사업가이자 나의 멘토였던 고 스탠리 마커스는 우편엽서를 모으고, 그것들을 가지고 세계를 여행하곤 했다. 여행 중에 그저 안부를 묻기 위해 몇 자 적고 다음 여행지에서 그 엽서를 보내곤 했다. 친구들은 그 엽서를 받았을 때 깜짝 놀라 기뻐하곤 했다.

현재 그의 손녀딸이자 샐리의 가장 오래된 친구인 전문사진작가 엘리슨 스미스씨는 그 전통을 그녀의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그녀는 그녀의 사진으로 손수 만든 우편엽서를 한 달에 스물다섯에서 서른 개 보낸다. 엘리슨은 자신의 행방과 경험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사진에 몇 문장만 적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한다.

규칙 43

분명하고 간결하게 하라

누군가에게 간단한 편지를 보낼 때는 “고맙습니다.” 또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의 편지이던 간에, 항상 말하고자하는 행동이나 사건에 관해 언급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화에서 요점이 없는 잡담을 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과 마찬가지로, 편지에도 자세하게 적어야 메시지의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 만약 누군가가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그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면 “마크에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앤을 위한 베이비샤워파티를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최근 만났던 사람이 다시 보고 싶다면,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던 소재에 대해 언급하라. “조만간 다시 만나서 초현실주의 미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라.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친절하고 간결하게 쓰라. 요점을 전달했으면 그걸로 됐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라고만 말하기위해 네 페이지에 달하는 편지를 쓸 필요는 없다. (다음 만남을 위해서 당신의 열정을 아껴둬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일이나 명절인사를 보내기로 했으면, “조만간 만나길 바랍니다.”라는 간단한 문구를 더하라. 오래된 친구이지만 멀리 사는 친구에게는 마지막 만남을 언급하는 것도 좋다. 종이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당신이 편지를 보냈다는 그 자체를 기억한다.

직접 쓴 감사의 엽서를 보내라.

손으로 쓴 편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마치 일지를 쓰듯이 내가 하는 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긴 편지를 부모님께 보낸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도 그와 비슷한 길이의 답장을 보내오곤 했다. 이렇게 서로에게 자유스런 형식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특이한 심리상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서로에게 더 솔직한 모습을 보여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메일이 더 선호하는 통신수단이었다는 점 외에는, 우리와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다. 그래도 나는 이러한 편지들을 출력해서 잘 철해서 보관해두었다.

나는 부모님과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 편지들을 읽다보면 손으로 직접 서로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어김없이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 사이의 확실한 기록을 가지게 되었고, 항상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규칙 44

상대방을 곤경에서 모면케 하라

아이스크림 한 통 먹으면서 달라스란 드라마 후속편을 보기 위해 직장에서 땡땡이 치기. 당신 이름 앞으로 단돈 오십 달러 밖에 없을 때 신용카드로 오백달러 짜리 마놀로 블라닉 구두 사기.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캐시미어 스웨터를 말도 없이 “빌려오기.” 이러한 행동은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누군가와 의 우정을 유지 하는데 있어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렇다.

우정은 일대일의 교환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긴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고자 할 때, 상대방이 곤란해 하지 않게끔, 똑같이 답장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다면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리는 것이 좋다. 편지상단 또는 이메일 제목 란에 “편할 때 읽어 답장해 주세요.” 또는 “꼭 답장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쓰라. 가족 친구인 테드 크로스는 더 재미있는 방법을 쓴다. 클리핑에 “이 편지에 답장하기만 해 보세요.”라는 메시지를 단다.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친구와 연락유지를 위해 간단한 이메일을 쓸 때는 (작은) 포스트잇 한 장에 쓸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자유롭게 쓴 편지에 답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기분들 때는 아마 “어쩌다 보니” 언니의 스웨터가 당신의 옷장에 들어가 있게 되었다고 구차하게 설명해야 할 때뿐일 것이다.

“답장하기만 해 보세요.”라는 이메일을 친구에게 보내라.

규칙 45

수화기를 들라

비용 때문에 지난 수 십 년 동안 편지가 전화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 어디 서나 통화가 가능한 휴대폰과 대그룹통신회사들의 경쟁으로 전화비를 최소가격으로 내려야만 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 장거리전화나 해외 전화를 아껴 썼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요통신수단으로 이메일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전화는 다시 특별한 경우에만 쓰이는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하지만 전화나 적어도 음성 메시지는 여전히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못할 때 사후관리로 의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어떤 전자서신을 할 때보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때 소통이 더 잘 된다.

하지만 전화로 수다를 떨 수 없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통화를 시작할 때 대화를 하기에 불편하지 않은지 물어봐라. 그리고 전화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하고는 직접 만날 때처럼 서로에게 편한 “약속 시간”을 정하라. 이렇게 하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기게 된다.

□ 만약 친구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면 그녀/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연락을 하라. 그리고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고자 했다고 분명히 말하라.

규칙 46

“보내기”버튼을 누르라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는 잘만 활용하면 우편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간편히 편지의 역할 그리고 그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다. 기사 올려내기를 하지 않고도, 잘라내서 붙이고 웹사이트에 링크를 직접 보낼 수도 있다. 생일카드를 분류해서 사지 않아도, 직접 맞춤형디자인하거나 전자카드 사이트를 통해서 생일카드를 보낼 수 있다. 여러 장 복사하고 봉투에 넣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디지털 사진이나 오디오 파일들을 첨부할 수 있다. 중요한 이메일은 출력하고 저장할 수 있어 편지처럼 다시 읽을 수도 보관할 수도 있다.

이메일은 사람들이 연락하는 방법을 바꿔 놓았다. 이메일의 편리성으로 사람들은 종종 사후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쏟고,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메일은 그 사용자의 우정을 향상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단점으로는, 이메일의 편리성으로 사람들이 우정에서 더 중요한 면 또는 상황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해 게을러진다는 점이다.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실제로 만나거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교류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메일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단들과 조화롭게 이메일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달팽이처럼 느린 우편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다!)

친구에게 기사를 보내거나 링크시켜 보내라.

규칙 47

우편을 보내야 할 때

연락을 지속하기에 아주 편하고 좋은 수단인 이메일도 어떤 때는 적당하지 않다. 더 형식을 갖추지 않은 수단이며, 사적인일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전자우편으로 예민하고, 감정적이고, 비밀스런 주제를 다루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사람들이 감시가 되는 일터에서 이메일을 종종 보내므로, 이런 방식으로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선물을 받았다면 감사의 편지를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 당신의 이런 수고는 보내는 사람의 선물을 잘 받았으며, 그에 감사하다는 표시이다.

애도의 말은 형식을 갖추는 것이 그 상황의 무게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필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상적이다.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당신이 알고 있는 고인의 좋은 품성이나 고인과의 추억에 대해 써라(규칙 43 참고). 돌아가신 분이 당신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는, 간단한 위로와 응원의 말로 당신이 상대방의 상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손길을 뻗어 준데 대해 고마워하지, 그들의 마음을 달래줄 완벽한 말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 만약 당신의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또는 가족을 잃었다면),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라.

규칙 48

사후관리를 할 때 창의성을 발휘하라

전화, 이메일, 메모와 같은 기본적인 사후관리 방법이 내키지 않는다면, 연락할 수 있는 아주 많은 독창적인 방법들도 있다! 단지 당신이 선택한 방식이 그 관계의 성질에 적합한지를 봐야한다. 여기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 **클리핑** :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내용 또는 상대방을 떠올리게 하는 잡지나 신문 클리핑을 보내는 사후관리 방법은, 할머니들이나 회사대표들 같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링크를 한 이메일은 이런 사후관리의 최첨단 형태이다.
- **추천하기** : 이 방법은 완전히 개인적인 경우(방금 이탈리아에 도착한 친구를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경우)와, 개인적인 일과 사생활이 혼합된 경우(개인 트레이너를 찾고 있는 친구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트레이너를 소개 시켜주는 경우) 모두 효과가 있다.
- **행사** :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세한 내용을 그에게 보내라. (예를 들어 “당신이 말했던 그 작가가 화요일에 국립 도서관에서 낭독회를 여는데 알고 있나요?”라고 해보라.)

친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얘기하면 유념해 두었다가 적당하게 추천할 것을 생각해 보라.

평생 동안의 행복한 대화

(오클라호마, 남태평양, 왕과 나, 사운드오브뮤직의)유명한 작곡가인 리처드 로저스의 아내이며 작가인 도로시 로저스는, 내가 1960년대에 니만마커스 백화점 바이어로 일할 때 출판되었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다.

스탠리 마커스는 니만마커스 달라스점에서 그 책을 전시하고 카다로그에 실을 것을 제안하였다. 책을 팔지 않는 매장으로서는 특이한 제안이었다. 로저스 여사는 그 행사를 위해 남편과 함께 달라스로 갔는데, 로저스씨는 평상시와는 반대로 자기가 아내를 후원하기 위해 손님으로서 여행을 따라온 것은 처음이라고 하였다.

책의 시사회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나고, 아내와 나는 도로시와 리처드 로저스부부와 함께 마커스씨 댁에 저녁식사 초대를 받았다. 새파랗게 젊은 바이어가 사장의 집에 초대를 받고 이런 유명인들과 함께 자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주 정답게 저녁식사 대화를 하는 동안 로저스씨는 자신을 “딕”이라고 부르라고 했고, 나는 1949년도에 뮤지컬 남태평양이 뉴헤븐 슈베르트 극장에서 브로드웨이 시연공연을 할 때 그를 만났던 적이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 당시 나는 졸업파티 파트너의 친구가 그 뮤지컬의 임시대역을 하여서 극장에 살짝 들어가서 리허설을 몇 번 볼 수 있었다. 거기에서 로저스, 메리마틴, 에지오피자 그 외의 스타들을 만났다. 이런 우연한 만남이 훗날 새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딕과 도로시 로저스씨 부부는 그녀의 책을 위한 우리의 노고에 매우 감사했으며, 뉴욕에 올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때 또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

사람들이 전화하고 “계속 연락하자”는 얘기를 할 때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나는 그들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해도, 나는 그들이 말한 대로 했고, 사후관리를 했기 때문에 결코 몰랐을 것이다. 그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즐거웠고 사 주 후면 뉴욕을 방문 할 것이라는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후관리를 너무 심하게 밀어 붙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만나고 싶다는 말은 쓰지 않았다. 일주일 후에 나는 여행 중 도로시로 부터 칵테일을 같이 하자는 반가운 초대를 받았다.

우리는 가서 멋진 시간을 보내며 그 부부의 재미있는 친구들을 만났고, 그 때 시작 된 우정이 평생 계속 되었다.

규칙 49

만날 약속을 정하라

어떤 사후관리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상대방을 다시 만나고자 한다면 너무 늦기 전에 꼭 다음에 만날 날짜를 제안해야 한다. 건성의 대화로는 친선이상의 감정을 주지 않으며, 전송받은 이메일 농담 같은 식상한 메시지를 통해, 반복하여 접촉하려는 실수를 하면, 그런 친선의 감정도 희미해져 버린다.

그러지 말고 계획을 세우라. “조만간 뵙고 싶습니다.”라고 하지 말라. “보고 싶습니다. 3월 5일 브런치에 초대합니다.”라고 하는 게 낫고, 만약 상대방이 멀리 살지만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우리 동네에 다시 올 일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함께 점심이나 저녁식사해요.”라고 표현하라. 그리고 당신이 상대방이 사는 곳으로 갈 일이 있다면, “7월 마지막 주에 토론토에 갈 계획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만나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 된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만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식으로 초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기분도 좋아지고, 아주 열성적인 반응을 받은 것이다. 이런 경우 당신은 이미 따뜻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셈이다.

□ 사후관리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해본 뒤, 메시지에 만나자는 제안을 해보라.

규칙 50

작은 선물을 하라

작은 선물이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친구나 지인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 초대에 대한 감사를 표할 때
- 내가 누군가 우울해한다는 생각이 들 때
- 작은 선물로 친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선물은 사치스러운 것일 필요도 없으며, 언제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주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있다.

- 고전 단행본
- 당신이 만든 음악CD
- 재미있는 작은 소품
- 수제 쿠키 한 상자
- 씨앗 주머니
- 양초

진심을 담아야 한다. 그러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에 대한 보답을 받을 것이다.

우연히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친구를 위해 그것을 사놓아라.

6장

깊은 관계를 맺어라

당신을 알게 되고,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당신을 좋아하게 되고,
당신이 날 좋아하게 되길 바라게 됩니다.
-오스카 해머스테인, 왕과 나.

인생은 얇은 물가에서 물장구나 치면서 보내기에는 너무 짧다. 우정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물에 뛰어들어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정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몇 몇 있지만, 우정을 더 돈독하게하려면 환경의 변화만 있으면 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우정이 물에 가라앉는지 뜨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아용 풀장에서 나와 해변으로 뛰어 들어가 봐야 한다. (당연히 뜬다에 내기를 건다.)

규칙 51

옛 친구를 유지하라

몇 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어도 어색함이나 불편함 없이 지난번 마지막 만났을 때 그대로의 느낌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바로 그들이 당신의 절친한 친구들이며, 그들과의 유대감은 아주 강해서 시간, 거리, 예기치 않은 일이나 불편함으로 약해질 수는 없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욕심으로 이렇게 완벽하고 좋은 우정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는 실수를 하지 말라. 대신에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유지하고, 시간이 되면 직접 만나라.

이러한 것들이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마음을 터놓고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말해줌으로서 그 친구가 알게 하라. 가능한 자주!

오랜 친구에게 가볍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라.

규칙 52

최근 소식 전하기

공항에서 꼼짝달짝 못하는 상황에 있다가 혹은 칵테일 몇 잔을 나누며 함께 웃다가 시작된 우정이든지, 아니면 적재적소에서 시작된 우정이든지, 어떤 상황과 중요한 순간에 당신과 한 친구가 처음에 함께하게 되었든지, 그리고 그 공통 유대감의 결과로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사이가 되었는지 상관없이, 그 이후로 서로의 최근 근황을 전하지 않고는 관계를 언제까지나 유지하기는 어렵다.

친구들의 삶에 대한 정보가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단계로 연락을 유지해야한다. 과거가 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옛 친구와 과거를 되돌아보며 추억을 나누는 것은 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일을 같이 경험하거나, 그때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당시의 기억은 서로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는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옛 이야기로만 대화를 질질 끌다보면 새로운 이야기로 진척해 나아가기 어려워진다. 옛 친구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잡아라.

1960년대 로저의 캠브리지 대학시절 절친한 친구인 찰리 샌더스가 뮤지컬 『키스 미, 케이트』 런던 첫 공연을 보러 왔을 때, 로저와 찰리는 만나서 지난 세월동안 밀렸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 그 후로도 삼십년 동안 그들은 전화와 편지로 연락을 하고, 일 년에 한번 정도 찰리가 달라스를 지나갈 때 만나곤 했다. 로저는 찰리와 그 뮤지컬 공동제작자와 그의 아내를 런던-스페인 빌바오 일정의 주말여행에 초대했다. 여행을 즐기며 예술, 건축, 음식, 와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보니 수 십 년 동안 우정을 쌓아왔어도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 최근에 친구가 된 버린드씨 부부에게 찰리를 소개하면서 그 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그들의 추억은 이제 캠브리

에서의 시간을 훨씬 넘어 현재진행형이다.

여행을 계획하거나 간단한 뒷마당 바비큐 파티 같은 계획을 짤 때도, 옛 친구를 초대해 당신의 현재 모습을 보여줘라. 그들의 최근 근황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라. 옛 친구를 컨퍼런스나 동창회에서 일 년에 한번만 만나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옛 추억을 되살리기보다 새로운 경험들을 더 할 때 우정은 더 두터워 질 것이다.

□ 옛 친구와 둘만이 현재 근황에 대해서만 대화해 보라.

어릴 적 친구와 다시 연락하기

열한 살 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여학생 여름캠프인 메인주 덴마크 위네고닉 캠프에 갔을 때 나는 나의 소중한 친구인 베즈나 고트웰드를 만났다. 베즈나와 나는 오즈의 마법사 공연을 함께 했는데, (그녀는 도로시역을, 나는 허수아비 역을 맡았고), 캠프가 끝난 후 나는 뉴욕에 사는 그녀를 방문했었다.

어릴 적 다소 짧은 만남을 나누었던 다른 친구들이 그렇듯이, 베즈나와 나 역시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작년에, 베즈나와 내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의 부모님과 우리의 친구 미미 킬고어는 우리를 위한 깜짝 재회를 만들어주었다.

미미는 내게 (화가로 일하고 있는) 베즈나의 그림화집을 보내 주었고, 우리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로 그 다음 주말에, 우리는 지난 2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로 하루 온종일 수다를 떨면서 보냈다.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공통점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만남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는 뜻밖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너무 기뻐고, 어른으로서 새로운 우정을 쌓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우리의 오래된 어린 시절의 관계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연락을 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 옛 우정에 대해 어린애 같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규칙 53

소극적인 관계를 친구로 만들어라

지난 두 달 동안 정기적으로 사진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의 강의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볍지만 즐거운 대화도 나누었을 거다. 그럼 당신은 상대방과 사진술 외의 공통관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잡담은 잡담에 그친다. (정기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연락은 하지 않는) “소극적인 관계”를 이제 친구로 전환 시켜야 할 때다.

예를 들어, 다음 세미나에서 그를 당연히 또 만나게 되겠지 생각하기보다는, 연락처나 교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기모임 밖에서 만날 계획을 짜야한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거나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이 새로운 환경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확실히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또는 이미 만들어진 공통점을 확대시키고 싶다면 갤러리 오프닝에 참석하거나 야외로 나가 함께 사진을 찍어라. 이런 공통관심사는 훌륭한 기반이 되고, 이봐, 그로인해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

□ 다음에 스쳐가는 인연과 인사를 할 때, 그/그녀에게 혹시 정기모임 장소 외에도 서로 만나고 싶지 않은지 물어보라.

규칙 54

멀리 있는 친구관계를 유지하라

살다보면 멀리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다. 전형적으로 이 친구들은 결혼, 동창회, 생일파티 등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보지만, 그 친구와의 관계는 가끔씩 하는 전화 통화나 연말 연시 카드교환 정도에 그친다. 당신이 유독 성실하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날그날 있었던 당신 삶에 대한 자세한 일 모두를 서로에게 알려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멀리는 있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한 방법은, 일상을 벗어나 적어도 일 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그들을 방문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만약 당일치기나 주말에만 된다면 어딘가로 짧은 여행을 가거나, 중간 지점에서의 만남을 조정하는 것들이 있다. 소중한 친구가 사는 곳 근처를 지나게 되면, 운전시간을 더 잡아서 친구를 만나러 가보자. 물론, 우편으로 카드를 부치는 것보다 조금 더 계획을 세워야 하고, 당연히 분당 삼 센트를 들여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우리를 믿어보라. 그 보상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이다. 함께한 한 시간이 심지어는 다가오는 몇 달 혹은 수 년 동안 우정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멀리 사는 친구를 방문할 계획을 세워라.

룸메이트와 나

나의 고등학교 룸메이트였던 크리스 컬린은 2년 전 그래미상 시상식 티켓 두 장이 생겨, 시상식에 나를 동반자로 초대하였다. 크리스는 싱어송라이터로 일하고 있던 워싱턴 D.C.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왔고, 우리는 레드카펫을 함께 걸었으며, 그녀의 몇몇 수상들과도 마주치게 되었고 시상식을 보았다.

십대 때의 추억들과 맞먹었던 그날 밤의 경험은 무언가 더 큰 영감을 주었다. 우리는 그 전에 이메일 교환이나 몇 년 동안 있었던 결혼식에서 만났을 때 보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성인이 되어 서로에 대해 알게 되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우정은 새롭게 발전되었고, 그로인해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규칙 55

친밀해져라

삼페인을 터트리고 분위기 잡는 베리화이트의 음악을 즐기라는 소리가 아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 친구는 “모임날짜 정하기”, 다시 말해 정기적으로 서로 볼 수 있는 날을 정하라고 충고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할까?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바탕으로 할 수도 있는 이런 모임은 친구와의 관계에 안정감과 신뢰를 주고, 더 돈독한 유대관계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임”은 일주일에 한번 있는 정식의 식사처럼 격식을 차리거나, 일요일 공원산책처럼 자연스러울 수 있다. 당신은 정기적으로 예정된 모임시간이 있으면 무의미한 잡담(과 지나간 얘기들의 되풀이)을 거쳐 친밀한 대화라는 더 깊은 물속으로 향해하게 된다. 당신과 당신 친구는 대강하는 말을 넘어선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더 친밀(그리고 “친밀함”은 간단히 “개인적인 이해심”을 뜻한다)한 우정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친구에게 당신의 집을 공개하는 것이다.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의 문을 활짝 열어놓기만 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더 솔직해질 것이다. 당신의 우호적인 면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면, 베리화이트의 앨범은 모두 치워두라!

아직 소중한 친구와의 정기적인 “모임”이 없다면 하나 만들어라.

규칙 56

시간약속을 관리하라

심지어 우정에서도 스케줄이 필요한건 슬프지만 사실이다. 하루를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우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의 일정계획표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남겨둬야 한다. 예를 들어, 로저는 친구 자크스 브롬과 둘 다 달라스에 있는 토요일마다 점심을 같이 먹었다. 그들의 우정은 수십 년 전 일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런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우정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다. 당신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시간도 겨우 넉 정도인데, 어떻게 이 약속을 다 지키나?” 또는 “어떻게 새로 생긴 친구까지 만날 또 다른 약속을 정해놓나?”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녀가 너무 팬찮고,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쌍둥이처럼 느껴질 만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다.) 손을 공중에서 휘저으며 “제 스케줄이 팍 찼어요.” “조금만 있으면 자면서 꿈꿀 시간도 잡아야 해요!”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루 1,440분 중에, 소중한 친구를 위한 몇 분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음과 같은 기회에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라.

- 일주일에 하루 운동이나 산책을 하러 만나라.
- 둘 다 참석하는 정기 모임에 카풀이나, 버스 또는 지하철을 같이 타고가라.
- 같이 식사하라. (어쨌든 밥은 먹어야 하니까!)
-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이나 스포츠 경기를 같이 보라.
- 빨래가 되는 동안 안부를 물어라.
- 오후커피 한잔하면서 만나라.
- 나란히 앉아서 손톱관리를 받는 약속을 잡아라.

우정의 돈독함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약속시간의 길이도 다름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리의 친구 사라모즐이 뉴욕타임즈 에세이 “바쁜 것의 중요성”에서 말했듯이, 참 이상하게도 가장 절친한 친구가 바로 가장 드물게 만나는 친구일 수도 있다. 그녀는 더 형식적인 친구일수록, 몇 주 전부터 약속을 잡고 그게 어떤 약속이든지 약속을 지킨다고 했다. “정말 친한 사람과한 약속만 취소 할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 “진정한 친구만이 이를 이해해 준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그러므로 꼭 취소해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라. 하지만 다시 약속을 잡아야 한다.

□ 일주일 동안 당신이 한가한 시간대를 1분 간격(혹은 1시간 간격)으로 적어라. 그리고 이제 창의적으로 “한가한 시간”에 할 사회활동계획을 세우라.

먹으면서 수다 떨기

내게 점심시간은 친구를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런 점심식사는 일대일로 만날 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의 배우자나 친구의 친구와 같은 제 삼자와 같이 만날 때는 만남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지만 단 둘이 만나게 되면 더 깊은 대화를 더 자유롭게 나누고 그런 대화를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나는 (앞서 말한 자크처럼)친한 친구 몇 명과 정기적인 점심식사를 하긴 하지만, 점심 약속이 없는 날에는 내 책상서랍에 모셔놓고 계속 더해가고 있는 “더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라는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

스탠리 마커스의 “좋은 사람들과의 오찬”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남성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그가 만들어낸 연례행사이다. 나도 거기에 오랫동안 참석해왔다. 그 행사는 한꺼번에 여러 명의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스탠리에게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서로 유대를 형성하는 공동의 경험이 되어서 아주 좋았다.

규칙 57

파티를 열어라

바쁜 사람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모두 함께 초대하는 것, 즉, 파티를 주최하는 것이다. 훌륭한 마르게리타와 맛있는 과카몰리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면, 멕시코를 주제로 한 파티를 열 기본재료는 갖고 있는 것이다. 쇠고기 음식이나 햄버거가 더 당신 취향이라면, 즉석 바비큐 파티를 여는 건 어떨까? 무엇을 선호하든지, 파티를 여는 것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고, 창조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초대장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초대장 목록에 다른 사람들을 섞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을 카드놀이 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가 너무 작거나 어질러져있다, 요리하는 것을 싫어한다, 모두 모이게 할 시간이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라면, 술집, 식당, 당구장 등 최소한의 계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체재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 모두를 초대하라. 단, 너무 붐벼서 불편할 만큼 사람들을 지나치게 많이 초대하지 말고, 초대한 모든 사람들과 얘기할 시간을 만들어라.

더 만나고 싶은 사람들 목록을 만들어라. 그런 다음, 저녁파티를 열어 그들 모두를 초대하라.

규칙 58

창조적으로 사교활동을 하라

만약 파티를 싫어한다면, 당신이 사교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독창적인 방법들도 많다. 예를 들어, 오페라나 발레를 좋아한다면, 가끔 티켓을 한 두 장 더 사서 친구에게 당신과 동행하자고 하는 것은 어떨까? 만약 친한 친구와 백조의 호수 그 시즌 공연을 이미 수백 번은 봤다면, 이 기회를 당신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

친구들과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식당에 같이 들어가 보는 것처럼 간단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처럼 실속 있거나, (공중그네타기 수업이나 하루 종일 스노쿨링하기와 같이) 완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처럼 모험적일 수 있다. 어떤 활동으로 시작을 하던지 간에, 독창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친구를 만나기보다, 쓰지 않는 물품 몇 개씩 가지고와서 교환할 수 있는 의류교환계획을 세우라. 남은물건은 중고품가게나 자선기관에 기증하라. 또는 당신이나 몇몇 친구들이 바삭한 메기튀김이나 구운 무지개송어를 좋아한다면, 생선 가게는 지나치고, 기분 전환삼아 저녁식사시간에 릴낚시여행을 가라. 적어도 아주 멋진 추억을 가지고(그리고 아마 배가 불러) 돌아 올 것이다.

융통성 있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남겨두라. 당신과 당신친구가 우연히 또 다른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술집에 가게 되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즉석에서 초대를 하라. 물론 다른 초대와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초대는 우정의 정도와 제안한 활동이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가능하다면 그들의 성향에 가장 잘 맞는 것에 따라 친구들과의 만남을 맞춰라. 그러면 그들도 그 초대에 더 행복해 할 것이고, 당신도 더 행복해 질 것이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많은 규칙들처럼, 친구와 새로운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의 전형적인 틀을 바꾸고자하는 생각과 행동,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

한 변화로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깊은 우정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도 또한 더욱 즐거워 질 것이다. 게다가 누구나 엄청나게 과장된 무용담이 적어도 하나 필요하다.

평범한 사교모임에 독창적이고 예상치 못했던 방식을 더하라.

미식가 투어

미첼팩과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서로 알게 되었지만, 외국전통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나누기 시작했을 때야 우리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둘은 외국전통음식들을 통해서 외국문화를 알아 가는데 정말 관심이 많았고, 우리 둘 모두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통음식들을 맛보기에 가장 좋은 레스토랑을 물색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요리 맛 집 탐방을 시작했다.

매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시식을 하기보다 관심이 있는 미식가들을 모아 우리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의 음식을 시식하게 한다. 차우하운드닷컴, 이걸리트오알지, 지역신문과 같은 미식가들의 대화공간을 통해, 연회식사를 하기위한 최고의 장소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리고 나서 날짜를 정하고, 이바이트 사이트에 초대장을 보내고, 맛 집 탐방을 한다. 배우면서 미각도 키우고, 혼자서는 해보질 못할 경험을 하면서 친구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규칙 59

중매쟁이가 되어라

가장 분명한 관계는 상호간의 관심분야를 바탕으로 한다. 호피족 도자기 컬렉션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를 호피족에 대해 연구하는 고고학자 친구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많은 성공적인 짝은 상극끼리 끌어당긴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아마도 직장에서 만난 활동적인 친구가 집밖에 나오지 않는 시인과 어울릴 것이다. 그들을 만나게 해주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라.

친구를 일대일로 소개해줄 계획을 갖고 있다면, 만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간단한 커피데이트나 점심식사가 적당한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혹이나, 만나고 바로 반감을 느낄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 서로 만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저녁 파티와 같이 여러 사람이 만나는 자리는 서로를 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다.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파티에서 소개를 할 때, 이러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잡담이 아닌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근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커넥터이므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두 친구에게 서로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라.

보헤미안캠프와 힐빌리 캠프

몇 년 전, 전 프랑스 주재 미국대사였던 내 친구 밴 갈브레이스가 그의 친구 윌리엄 에프 버클리 주니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세코이아 대 산림지대인 보헤미안에 있는 멋진 휴양지인 그로브에 함께 가자고 나를 초대하였다. 보헤미안 클럽은 여름마다 회원들과 손님들을 위한 “캠프”를 운영한다. 나는 너무 운이 좋게도 “힐빌리 캠프”에 있는 밴과 빌 캠프에 합류하였다.

내가 한참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내게 미치다(Crazy For You on Broadway)*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라서, 한 동안 밴과 나는 서로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밴은 자기에게 그렇게 특별한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즐겁고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 그 주말이 같은 학교도 다녔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 본 적이 없었던 빌 버클리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나흘 동안 함께 보내면서, 나는 옛 친구 밴과 정말 좋은 유대를 형성하였고, 빌에게서 새로운 친구의 모습을 발견했다. 빌은 유쾌하고, 사려 깊고, 지적이며, 정보가 많고, 나의 예상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의견에 아주 관심을 보이는 친구였다.

그 보헤미안 그로브 캠프는 재미있고 활기찬 얘기들로 가득 찼고, 밴이 우리를 위해 만든 이 함께한 경험으로 인해 그와의 우정이 돈독해졌고, 빌과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새 우정을 만들었다.

7장

베풀어라

달콤한 우정 안에서 웃음이 있으리.

나눔의 기쁨이 있으리.

-칼릴 지브란

우정은 친구를 행복하게 했을 때 느끼는 순수한 기쁨을 위해 주는 것이지 받기위해 주는 것이 아니다. 좋은 친구는 자신이 무엇을 얼마만큼 돌려받느냐에 따라 우정의 감정을 할당하지 않으며, 절대 계산하지 않는다. 우정의 참된 아름다움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은 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고, 주고, 또 줄 수 있고, 성공적인 우정의 우물은 절대 마르지 않는다. 사실상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더 많은 보답을 받을 것이다.

규칙 60

호의를 베풀라

답례, 되갚음, 내가 도와 줄 테니 당신도 나를 도와 달라. 최근에 네가 나를 위해 무얼 했는데? 이러한 문구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사업관계와는 달리 우정에서는 보답으로 무언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 없이 헌신적으로 주어야 한다. 이상적인 우정이라면, 그를 주말스키에 초대하고, 그녀에게 점심을 사주고, 기대어 울 어깨를 제공하는 등, 친구를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할 때 당신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게 바로 당신의 보상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베풀어라.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이다.”라는 노래도 있지 않은가?

가끔 말보다 행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우리의 우정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지만, 종종 상대도 똑같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누르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우리는 “당신이 그들에게” 해주는 것과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당신에게도” 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정의 다양한 표현 모두 효과가 있다. 한 번의 저녁파티초대에 두 번 카테일파티, 한 통의 편지에 한 통의 전화가 보답이 될지를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계산하지 말라, 그러면 더 행복한 사람 더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우정의 방식이 당신하고 다른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친구가 다양한 만큼 그들의 성격도 다양해서, 각각 우정에 대한 접근법도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수줍음을 타는 사람은 당신처럼 편안하게 먼저 계획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 정말 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것을 지치고 힘들어한다.
- 친교의 기회를 제한하는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
- 우호적인 진보에서 운이 좋게도 늘 호의를 받아온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호의를 먼저 베푸는 것에 서툴다.

친구가 될 사람이 위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간에, 우정, 사려, 고마움은 표현해야 한다. 친구마다 알맞은 연락방법이 뭔지 생각해보고, 당신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을 찾아야 한다. 기억하라. 세상에는 그 어떤 이유에서건 당신을 대접해 주거나 초대하지 않고,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사람들은 많은데, 이거 알아? 그래도 그들은 당신의 친구이다.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좋은 의사

의사인 내 친구는, 흥미롭고 재미있지만 조금 독특한 친구이다. 친구들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와 저녁식사에 가는 것은 좋아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대접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녁식사초대를 많이 받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모두는 그가 우리의 초대에 보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와 함께하면 즐거우니 그냥 그러려니 했다. 우리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

몇 년 전, 의사인 그 친구는 시카고의 넓은 땅을 상속 받았고, 바로 수백만 달러에 팔았다. 그때가 마침 의사직업에서 퇴임을 할쯤이었다. 갑자기 그 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돈이 생긴 것이다.

어느 날, 영국 콩코드비행기를 전세 내어, 수 년 동안 그의 친구였고 파티를 열었던 마흔 아홉 쌍의 부부를 초대하고, 비용도 그가 전부 지불해, 일주일 일정의 런던여행을 떠났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갈수 없었다.) 우리가 만약 계산적으로 생각을 했었다면, 수 년 동안 파티를 주최했던 게 그 여행으로 후하게 보답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친구는 그의 방식으로, 자신이 할 수 있을 때 우정에 보답을 한 것이다!

규칙 61

계산하지 말라

좋은 싫든, 우리 모두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요점은 언제, 왜 계산하는 경향이 있는지 깨닫고 그러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외향적이고, 일을 앞서서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계산하지 않기”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계속 처하게 된다. 가끔 상대방이 언제쯤 당신의 초대에 보답을 할지 또는 상대방이 왜 당신을 더 자주 초대하지 않는지 궁금해 한다. 또 가끔씩은 누군가의 우정의 표현에 적절하게 보답할 방법을 모색하며 “자신에 대해 계산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상호작용 하나하나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야단법석을 떠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짓이 되어 실망만 낳는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상대방도 그들의 기여에 대해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산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 인생의 모든 면에서 “빛을 지고”있다고 느껴 신세진 사람에 대해 계속 계산한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런 소개를 해준데 대해 당신이 영원히 감사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관용을 베푸는 자체에서 기쁨을 즐기지 못하고, 인정을 필요로 하는 타입의 사람들이다.

그럼,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당신이 주로 우정의 표현을 주는 쪽인지 받는 쪽인지 간에, 깊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떨쳐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게 신세를 진사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라.

다음으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방식을 알아주고 고마워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상대방도 계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 신용을 얻거나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면, 잘못된 이유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당신의 관계를 재는 것은 그만하고, 긴장을 풀고, 친절해져라. 그러면 세상이 갑자기 더 관대하게 보일 것이다.

□ 재지 말고, 친구, 지인,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규칙 62

모험하라

강하고 조용한 타입의 사람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늘 수줍은 성격으로 파티에서 춤도 추지도 못하고 구석에 있는 당신도! 기쁘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상대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거라 생각하면서 솔직한 마음을 숨기고 있다면 계속 읽어보라. (그 외의 사람들도 마음에 항상 새겨야 하는 것이니 잘 읽어보라!) 엄격한 교육을 받았거나 과거에 거절을 당한 경험 등 당신이 어떤 이유로 과묵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당신의 소극적인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런 내 말에 솔깃해졌다면, 우정의 최고의 특권중의 하나는 어떤 생각이든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정에서 표현의 “규칙”은 사업에서 만큼 분명하지는 않다. 관리자들은 직원들을 칭찬하는 지침이 있고, 그것이 근무환경을 고무시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 조심한다. 직원을 감독한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이 규정에 의하는데, “경고”라고 불리는 규정집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공적인 업무이다.

예로부터 연인 사이에서도, 관계를 진척시키거나 끝낼 때 그들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는 방법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진보이며, 일반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우정에서의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하트모양의 초콜릿 상자나 빨간 장미 한 다발로 마음을 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친구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친구들을 더 편하게 대하고 말로 표현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일련의 기본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친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거부한다. 실제로 우정의 표현의 아름다움은, 규칙도 장애물도 없다는데 있다. 사실상

우정을 표현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필요도 없으며, 게다가 그런 표현을 거의 항상 고마워하고, 절대 경멸하지도 않는다(이 또한 우정이 연인사이보다 더 좋은 점이다). 우정에서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말이나 기계적인 대답 같은 것은 없다. 어떤 친구도 당신이 그와 함께해서 정말 좋다고 말하거나, 특히 한 주제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다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아주 의미가 클 것이다.

당신이 만약 다소 수줍음을 타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친구는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신의 친구는 당신의 표현에 훨씬 더 고마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 안심이 된다. 얼마나 마음깊이 그들에게 고마워하는지 알릴 수 있을 때마다 용기를 내라, 그러면 결국 그 마음이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장한다.

□ 친구에게 그/그녀와의 우정이 당신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말하라.

8장

우정의 밑물과 썰물

눈에는 눈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모두 장님이 되고 말 거요.

-마하트마 간디

우정도 인생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진화한다. 인생을 살다보면 특별한 우정이 우연히 시작되고, 더 가까워지고, 한동안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새로워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성격과 그 환경에 따라 우정이 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살면서 경험하게 될 우정의 양과 질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가도 가끔은 친구와 충돌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것은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교제를 하는데 진심이 있으면 필요로 하는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규칙 63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따르라

강물은 멋지다. 끊임없이 변하고, 방향을 바꾸며, 앞으로 나아간다. 건기에는 수액처럼 잔잔하게 천천히 흐르고, 우기에는 물이 불어나서 범람하기도 한다. 우정의 썰물과 밀물도 강물처럼 유동적인데, 이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 삶이 정체 되어 있고 우정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성장도 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다섯 살 때 길 건너편에서 살았던 이웃이나, 첫 직장에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동료처럼, 어떤 친구들은 당신의 인생에 쉽게 들어온 것만큼이나 쉽게 사라진다. 또 다른 친구들은 지극히 친하고 의미가 있었던 우정이, 상황, 입장, 감정적인 이유로 서서히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어떤 친구들은 오랫동안 뜸했던 기간이 지나, 생각도 하지 않았을 때 당신의 인생에 다시 들어 오기도 한다. 우정은 이러한 단계중의 하나를 거치지만, 또 몇 차례를 겪을 지도 모른다.

우정을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 유동성 때문이다. 우정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것이 그 코스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놔둘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이다. 강물과 꼭 마찬가지로, 진정한 우정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 필요 없으며, 단지 흘러가면서 자신의 길을 찾는다.

□ 멀어져 가는 우정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원망은 그냥 놔두어라.

규칙 64

불균형을 바로 잡아라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 우정의 춤을 추다보면, 두 파트너가 동시에 가는 방향이 달라서, 또는 더 안 좋은 경우에는 한 친구가 항상 리드를 하려하고 다른 친구는 태평스럽게 그 불균형을 인식하지 못해서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당신이 계속 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당신이 당신 친구보다 훨씬 많이 준다고 느끼거나, 더 안 좋게는 그가 당신을 불행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 관계를 진지하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서 꼭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우정이 바닥으로 떨어져 비열한 말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과장된 표현들을 하며 불같은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의 생각을 친구에게 재치 있게 얘기하면, 곧 분별력 있는 의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매번 초대하고, 항상 먼저 나서는 등 한 우정에서 당신이 말과 행동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신의 친구는 보답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고 심지어 피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저기 지난번 우리가 만났을 때도 내가 전화해서 만날 약속을 잡았잖아. 네가 많이 바쁜 줄 아니까 다음에 네가 가장 편한 시간에 내게 연락하는 건 어떨까.”라고 하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필요한 것을 말하면서 공격적이지 않게 친구의 코트에 공을 던질 수 있는 방법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면, 그녀가 말하고 싶은 문제가 있냐고 물어본다. 당신은 우정을 지속하는데 그녀 쪽에서 조금 망설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을 할 수 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그 상황이 당신에게 불편하다는 것을 꼭 말할 필요가 있

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불평이 생기고 그 관계는 아주 빨리 나빠질 것이다.

물론, 어떤 우정에 있어 상대방은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일방적인 우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무대에서 “댄스” 파트너가 모두 당신을 버리지 않는 한, 언제나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을 수는 있는 것이다.

친구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점에 대해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해라.

규칙 65

우선 친구가 되고나서 사업 파트너가 되라

친구가 자연스럽게 사업 파트너로 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친구와의 우정이 소중한다면, 친구가 우선이고 사업 파트너가 두 번째임을 기억해야 한다. 쉽게 친구와 거래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에게 친절하게 접근하면서 당신과 사업을 하고 싶다는 관심을 가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사업 파트너로 두 번째로는 친구이기를 원한다. 우정을 밑돈으로 걸고 하는 사업제안을 하는 도박에서 긍정적인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우정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신과 당신 친구는 사업을 함께하면서 있을 수 있는 (재정 문제나 그 외에 것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친구와 사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이 될까?” 물어보라. 만약 그 위험이 너무 크다면, 사업을 함께 할 다른 파트너를 찾아보고 당신의 우정은 지켜라.

□ 친구와 사업계약을 할 때, 사업거래가 실패하면 우정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이 된 “우정”조항을 만들어라.

당신 인가, 당신의 배경인가?

내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보조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유명한 영화 제작자에게 접근을 하는데 내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진정으로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내가 유명한 사람과 일하고 있어서 나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을 구분 짓기가 어렵고 불편했다.

나의 일(그리고 나의 상사)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비난 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최소의 진심도 없는 그런 친구들에게 순진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나는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경계를 해야 했으며, 게다가, 내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알면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종종 실망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친구를 결정하고, 친구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은 가끔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딴 마음을 가지고 관계에 접근하기도 한다. 당신이 친구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자신과 상대방에게 솔직해져라. 단순히 즐거움과 공통점을 나누기보다는 사업적인 관계라는 느낌이 더 든다면, 그 관계는 직장에서나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규칙 66

변장한 늑대를 조심하라

양이 옷을 입은 늑대에 대한 이솝우화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다. 외모와 호의적인 행동이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장 사려 깊은 선물에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하는 한, 개인적인(그리고 종종 사업에 관련된)이득을 얻기 위해 우정을 이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친구가 가끔 사업의 성질을 띤 계획과 모험에 서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능력 있는 조각가이고, 또 한 친구는 화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을 서로 소개 시켜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단순히 당신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계획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정을 찾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그런 경우 우정은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 신뢰감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품과도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거래에서 정확하고 솔직해야 하며, 신뢰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잘 살펴보면, 아마 평상시에는 부드럽고 친절할 얼굴 뒤에 숨어 있는 으르렁 거리는 이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친구의 “무리”를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한다.

신 자몽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고등학교 친구인 B에게서, 우리에게 마지막 연락을 하고난 후, 그의 근황을 알리는 장문의 편지를 받고 아주 기뻐했다. 그가 얼마나 우리의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쓰고,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몇 주 후에 “(우리가 오십년 전 같이 다녔던 학교인) 힐에서의 멋진 추억을 떠올리며, 나의 옛 친구 로저에게.”라고 적힌 카드와 함께 멋진 자몽바구니를 받았을 때, 기쁘기도 했지만, 어쩔 줄을 몰랐다. 친구B는 그의 편지에, 그는 퇴임을 하였고 앞으로 흥미 있는 일을 찾고 싶다고 하였다.

나는 자몽 바구니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썼고, 일주일 쯤 후, 좋은 옛 친구B에게서 “그냥 안부를 묻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내가 미국국립예술기금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네 친구 클레이존슨이 현재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에게 부시대통령에게 나에게 대해서 얘기 좀 해주었으면 한다(‘좀 부탁한다’ 또는 ‘그래도 괜찮을까’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자몽이, 내 “친구”가 단순히 우리의 관계를 다시 되찾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첫 번째 실마리였던 것이다.

효과적인 우정

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연출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 친구들을 투자자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친구를 투자자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그야말로 솔직해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투자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들이 투자액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를 위험 가능성을 설명했다. 내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각각 친구들에게 “우정을 잃느니 차라리 당신의 돈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 어쨌든 친구들 대부분이 투자를 하였고, 다행히도 그들 모두는 여전히 나의 친구들이다.

규칙 67

놓아주는 연습을 하라

밀물이 가면 썰물이 온다. 우리는 모두 점차 식어가는 우정도, 오랫동안 인생의 일부분이 되는 우정도 경험해 봤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더 이상 그것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극복할 수 없는 의견 차이와 같은 일로 우정이 끝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각각의 경우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친구를 평가하고, 삶에 편한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조치를 취한다.

우정의 결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의 기복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건 또 무슨 충성? 이냐고 물을 지도 모르겠다. 어떤 고난에도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면 뭐 안 되나? 잘 들어 보라. 충성은 좋은 친구가 되는데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현재의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되리라는 엄숙한 맹세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제약이 될 수도 있다. 사람도 상황도 불가피하게 변하며 그에 따라 우정도 변하게 된다.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이었든, 단지 당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변할 수 있다. 엄마가 “친구가 벼랑에서 떨어지면 너도 따라 떨어질거니?”라고 물을 때, 정말 친구에게 충직 하는 사람은 “네.”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건전한 대답은 “아니요.”이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도 한때는 서로 통했던 믿음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다. 가끔은 그런 의견 차이가 초기에 형성된 어떤 유대관계보다 더 강하고 그런 근거로 우정을 단계적으로 멀리하는, 셸리가 말한 “봄맞이 대청소”도 괜찮다. 사실상 이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며 옷장에 있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버리는 것처럼 합리적인 것이다.

우정의 밀물과 썰물은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다시 당신의 인생에 들어올 때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옛 친구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를 지나

갈 때나 그들에게 다시 연락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을 찾게 되고, 단순한 호기심이 찾고자 하는 마음도 부추긴다. 누군가가 얼마나 변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만, 그대로 인지 알게 되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가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친구와도 멋지고 성숙한 우정을 맺는다.

만일 당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숨기지 않는다면, 그 반대 상황의 경우는 실제로 실망스럽지 않는다 해도 아무 보람이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와 다시 연락이 되었는데, 그는 더 이상 당신이 대학교 시절에 알고 있었던 그 공정하고 도량이 넓은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전혀 기쁘지 않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옛 친구와 다시 연락하는 것은 많은 개인적인 자기성장 목적에 도움이 되고, 삶의 큰 경험들 중의 하나로서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다.

밀물과 썰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는데 엄격한 규칙이라기보다 철학적인 개념이 있고, 요는 우정의 모든 기쁨을 누리는데 있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우정도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며 기복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처를 받거나 감정이 쓰리는 끝없는 순환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우정은 오고 가는 것이며, 그게 전적으로 괜찮다.

□ 얼마간 소원해진 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멀어진 우정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기

존 멀런과 나는 오랫동안 아주 좋은 친구사이였다. 캐롤린과 나는 존과 그의 아내 앤을 많이 만났고, 운이 좋게도 존은 달라스에 있는 우리의 수영장이 딸린 집과 낸터켓에 있는 여름별장을 설계해 주었고, 그로 인해 그는 건축상을 받았다. 그는 여가 시간에 컨테이너 스토어 회사의 공동설립자가 되었다!

하지만, 각자 일도 하고 가정을 꾸리며 바빠지게 되면서 사이가 다소 멀어졌다. 무슨 사건이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각자의 삶 때문이었다. 어느 해, 우리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멀런의 집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을 하였는데, 그 만남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했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파티장에서 메모장을 꺼내고, 다음 점심식사 약속기산을 바로 정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우정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규칙 68

보내라

우정을 키우는 것은 아름다운 꽃나무를 가꾸는 것과 같지만, 슬프게도 얼마나 많은 관심을 상대방에게 퍼 부었는지 상관없이 정착하지 못하는 우정도 있다. 가끔은 상황, 타이밍, 궁합이 의미 있고 지속적인 우정을 형성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서서히 식어가는 우정을 지켜보느니, 재빨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전화를 하거나 만나자는 빈 약속을 하지 말라. 식어가는 우정도 여전히 당신의 진지함과 정직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

한 우정이 의미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 대개는 그냥 불편하거나 심지어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살펴 봐야할 몇 가지 신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누군가와 약속하고 그만큼 취소하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자 하는데 진정한 관심이 있지 않다고 안심하게 생각할 수 있다. 만약 만날 때 마다 서로 같은 대화를 반복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아마 서로 할 얘기가 많지 않은 것이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활짝 피는 꽃이 아니라 발버둥치는 잡초와 같거든, 떠나보내라. 그럼 모두가 더 행복해 질 것이다.

우정을 더 이상 지속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정중하게 끝내라.

한때 친구사이였고 미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친구를 정리하는 기술

때때로,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친구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것이다. 여기 정말 더 이상 친하게 지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낼 때 쓰이는 몇 가지 기술들이 있다.

- 피하기. 부정직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고 연락을 하거나 만날 날짜를 정하기 어렵게 하라. “사는 게 아주 바빠서,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다.”와 같이 말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조금 거리를 두기. 무례하게 굴지 않으면서 상호작용을 피상적이게 만들어라.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상대방이 한 발짝 물러설 것이다.
- 직접적으로 표현하라. 상황이 보장이 된다면, 용기를 내서 진심을 얘기해라. “사람과 우정은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우린 좀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하라.

만약 한 때 친구 사이였고 앞으로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친구를 존경과 호의를 가지고 대하면, 그 관계는 심한 상처나 불쾌함을 주지 않고도 다시 연결 될 수 있다. 한때는 친구와 많은 공통점을 나누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시 관심이 생기는 시간도 올 수 있다. 만약 서로의 감정에 조심해 왔다면,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더 쉬울 것이다.

규칙 69

흐름에 따라가라

백조가 고요한 호수를 가로질러 물을 젖고 가는 것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는가? 마치 수면에 화려한 물결을 만들면서 물위를 미끄러지는 것 같다. 하지만 물속을 보면, 물갈퀴 달린 발이 필사적으로 물을 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아한 창조물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

성공적인 우정도 마찬가지다. 힘들지 않고 쉽게 보이지만, 이를 물에 떠 있게 하려면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다. 우정을 쌓아갈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에 양보하고, 정서적으로나 상황에 의한 장벽이 생길 때는 잘 극복하면서 우정의 흐름을 잘 탈 수 있다면, 꼭 필요한 이런 과정들도 즐길 만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힘들거나 지겹다고 느끼지 않으며, 결국 우정을 나누는 것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들 중의 하나이다!

밀물(과 썰물!)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러한 노고를 누릴 수 있다는데 감사하고,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모든 우정을 축하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데 감사하라.

규칙 70

햇빛이 들어오게 하라

햇빛은 닫혀있는 문 뒤로는 절대 빛나지 않는다. 지금쯤 만약 당신이 문을 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많은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햇빛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두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그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서 결코 우정이나 기쁨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 밖으로 나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일들을 경험해 보라.

결론

관계를 맺는 것의

교훈과 보상

우리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해야 할 일들을 신중히 살펴보면서 이미 몇몇 새로운 지인을 만났기를 바라며, 그들 중 몇몇은 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중이기를 바란다.

살면서 우정에서 느끼는 만족과 행복에 필적할 만한 경험들은 많지 않다. 우정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헤아릴 수 없다. 이 책은단지 출발점이다. 새 친구를 사귀고 기존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이제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만족하는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